소학생

4282년 6월 1일 발행

68호 6월치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그림 • 정 현 웅

★이달의 메모★

6월6일…망종 (芒種=24절기의 하나로, 보리는 익어 먹게되고 볏모는 자라서 심게 되는 때)

6월10일…6•10만세 기념일(기미년 3•1운동 만세가 있은지 7년만인 1926년 6월 10일 순종(純宗)의 인산날, 서울에서 독립만세로써, 반일운동(反日運動)을 한 우리 민족으로서 뜻깊은 날이다. 그 때에 쓰러지신 선열에게 묵상을 드리자)

6월22일…하지 (夏至=낮이 제일 길고 밤이 제일 짧은 때)

☆차 례☆

소설•아름다운 힘말의 여름…피 천득 (4)
소설•한안목배……정 인택 (14)
동화•한줄의 흙……이 달 (40)
동화•얼굴점은 여자……유 한숙 (46)
동요•봄 바 람……김 인수 (20)
동요•무럭 무럭 자라고……권 태웅 (9)

★네번째 아협 현상★
동요와 작문 입상자 발표…(21)

★돈이란 무엇인가?……(11)
그림동화•피노치오……작은 돌 (32)
★중국 옛얘기……청 사 (28)
★무전은 어떻게 발명되었나?…박 동식 (22)
★백두산 이야기……홍 종인 (25)
★동요 맛보기……박 영종 (37)

○우리나라 공부……조 용만 (10)
○위원의 말씀……(6)
○몸을 튼튼히 하는 줄넘기……박 은섭 (30)
○과학질문……(36)
○마법산 이야기……(44)
○뒷질장 설명……(43)

☆우리 학교 작품☆
인천 서림 학교치……(47)

★요술장난•오래기 빼내기……(46)
옛날 우리나라 스포오쓰……(39)
마화•아담손 할아버지……(2)
만화•용길이와 쥐……이 영준 (51)
꼬마상식……(45)
처처박사……(42)
팔팔박사……(29)
씨동이……(50)
소학생 구락부……(50)
만들고나서……(50)

애독자 아협 상하기 문제……(36)
4월치 애독자 아협 상하기 발표……(45)

☆ 그림 그리신 분 ☆
정 현웅•김 의환•김 기창
임 동은•조 병덕•최 수섭
질장•한 홍택

소년 소설

아름다운 한말의 여름

윌리엠·사로얀 작 ★ 피 천득 번역

이 이야기를 쓴 윌리엠 사로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출생하였읍니다. 그는 지금 마흔 두살입니다. 그의 부모는 아세아 서북끝에 있는 아루메니아 사람들인데, 미국에 어민으로 가서 미국 사람이 되었읍니다. 사로얀은 여덟살부터 신문을 팔았고, 그 후 전보배달부, 전보국 사무원, 신문기자, 그 외에도 여러가지 직업을 가졌었읍니다.

그리고 이번 제이차 세계대전에는 이등병으로 출전하였읍니다. 그는 1933년 그가 36세 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고, 그 후에는 연극각본도 썼읍니다. 1949년에는 유명한 퓨리싸문학상을 탔읍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쓴 것이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사는 아루메니아 사람들입니다.

그 때 나는 아홉살이었고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많고, 사는 것이 이상스러운 꿈과 같았읍니다. 어떤 날 나의 사촌 모오래드가 새벽 네시에 우리 집에 와서 내 방 유리창을 똑똑 두드려서 나를 깨웠읍니다. 모오래드를 (나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들 미쳤다고 하였읍니다.

"아랄" 하고 그는 나를 불렀읍니다.

나는 침대에서 뛰어나와 창밖을 내다보았읍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읍니다.

아직 아침이 되기 전이었읍니다. 그러나 여름이었고, 얼마 안 있으면 먼동이 를 순간이어서, 내가 꿈을 꾸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만큼 밝았읍니다.

나의 사촌 모오래드는 아름다운 하아얀 말 위에 앉아 있었읍니다.

나는 창 밖에다 머리를 내밀고 눈을 비볐읍니다.

"정말 산 말이다. 꿈이 아니다. 너 타고 싶거든 옷입고 얼른 나오너라."

모오래드는 우리 아루메니아말로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나는 사촌 모오래드가 이 세상에 태난 사람 중에서 누구보다도 재미나게 사는 줄을 나는 잘 알지마는, 말을 타고 온 것은 믿을 수가 없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내가 어려서 기억한 것 중에 제일 첫번에 기억한 것이 말이요, 그러고 제일 첫번 소원이 말을 타보는 것이었읍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타고 온 것은 너무나 훌륭한 사실이었읍니다. 믿기 어려운 둘째 이유는, 우리 친척들은 가난하였읍니다.

이것이 내가 본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이었읍니다.

우리들은 가난하였읍니다. 돈이 없었읍니다. 우리 온 족속이 모두 가난뱅이었읍니다. 가르고 탄니안 일가 친척들은 모조리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랄만한, 그리고 웃음이 날만한 빈곤 속에서 살고 있었읍니다. 우리들의배를 음식으로 채울만한 돈을 어디서 버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었읍니다. 우리 집안 노인들도 몰랐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직하기로 유명하였읍니다. 우리는 11세기(世紀)동안 정직한 것으로 유명하였읍니다. 이 세상이 우리 세상이라고 여기던 우리가 제일 부자였던 때에도 그랬읍니다. 우리는 첫째는 거만하고 그 다음에는 정직하고, 그 다음에는 옳고 끓은 것을 가렸읍니다. 도둑질은 말할 것도 없고,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 우리 친척에는 한 사람도 없었읍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훌륭한 말을 눈앞에 보지마는, 그러고 말 냄새를 맡고 씩씩한 숨소리를 듣지마는, 나는 그 말이 우리 사촌 모오래드나 나나, 또는 우리 친척 누구와도 관계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모오래드가 그 말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 수 없다면 그것을 훔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훔쳤

지고 일어지지 않았읍니다.

가우그만니안 일가 사람은 도둑놈이 된 수는 없읍니다. 나는 내 사촌을 쳐다보고 또 그 말을 곱씹어 보았읍니다. 그들 얼굴에는 무엇이 엄숙한 빛과 웃으운 데가 있어서, 한편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한편으로는 나를 놀라게 하였읍니다.

"모오태드야, 너 이 말 어디서 훔쳐왔니?"

"정말로 뛰어나오너라. 타보고 싶거든."

그는 이렇게만 말했읍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훔친 것입니다. 그것에 틀림이 없었읍니다. 그는 내가 타든지 안타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메릴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말을 타려고 훔치는 것은, 가령 돈 같은 것을 훔치는 것과 다른 것 같았읍니다. 아마 그것은 훔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를 것입니다. 모오태드와 나 같이 말에 미치면,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 말을 팔려고 하지 않으면 도둑질이 안됩니다. 그러고 우리는 그럴 리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좀 더 입게 기다려라!"

"그래 얼른 빨리 입어라."

나는 부리나케 옷을 입었읍니다.

창으로 마당에 뛰어 내려가 모오태드가 탄 말 궁둥이에 붙어 탔읍니다.

그 해 우리는 읍내 끝에 있는 월나아베뉴에서 살았읍니다. 포도원, 과수원, 봇도랑, 그리고 시골 길이 있었읍니다. 3분도 되기 전에 우리들은 오리부 아베뉴에 다달았읍니다. 그러고 그 때부터는 말이 뛰기 시작하였읍니다.

어떤 집안에도 미친 증세가 있을 적은이 있읍니다. 우리 사촌 모오태드는 우리 일가 속에 있는 이런 미친 증이 있는 사람의 표본입니다. 그러고 모오태드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는 우리 코스모브 아저씨가 그런 분입니다. 까만 머리털이 난 머리는 크고 몸집도 엄청나게 컸읍니다. 성미가 어떻게 사납고 괴벽하고 조급하던지, 남이 하는 말을 소리를 질러서 멈추게 하였읍니다.

"그것 해롭지않아 걱정말아!"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다가도 고만 질겁하고 그만 두었읍니다. 한번은 그가 이발소에서 수염을 다듬고 있으려니까, 그의 아들 아락이 숨차게 뛰어 와서, 그의 집에 불이 났다고 하였읍니다.

이 코스모브 양반은 일어나 앉으며,

"그것 해롭지 않다. 걱정말아."

하고 소리를 질렀읍니다. 이발소 사람은,

"영감 댁에 불이 났다는데요."

하였읍니다. 그랬더니 코스모브 아저씨는 소리를 질렀읍니다.

"글쎄 해롭지 않다니까!"

모오태드의 아버지는 수이 판단하고 야무진 소라브라는 분이었읍니다마는, 우리 사촌 모오태드는 천성이 코스모브 아저씨의 아들이라고 인증을 받았읍니다. 이런 일이 우리 일가 속에서는 보통이었읍니다. 자기의 친 아들이라도 성질은 자기와는 딴판이

었읍니다. 우리 일가는 옛날부터 성질은 타고 나는 것이 한결 같지 않고, 일정하지 않았읍니다.

우리는 말을 달리고 모오레드는 말 위에서 노래를 불렀읍니다. 우리는 말이 마음대로 오래오래 뛰게 하였읍니다.

이번에는 모오레드가,

"내려라. 나혼자 타고 싶다."

하였읍니다.

"나도 혼자 타보게 하겠니?"

나는 물었읍니다.

"내가 아니. 그것은 말이 하기에 달렸지. 어서 내려라."

"말은 나를 타게 할거야."

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따 보자. 나는 말을 다루는 방법은 안다."

"그럼 네가 다루는 방법이 있으면 나도 있지."

"네가 다치지 않게 부디 그렇기를 바란다."

"자아 그려마. 그렇지만 이따가 나 혼자 타보게 해야 된다."

내가 말에서 내리니까 모오레드는 발뒷굼치로 말 옆구리를 찌르면서 빨리 뛰라고 소리를 쳤읍니다. 말은 뒷발도 일어서서 콧소리를 치고 뛰어 달아났읍니다. 이것은 내가 여태까지 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광경이었읍니다. 마른 골이 난 들판을 지나가서 말을 탄채로 봇도랑은 건넜읍니다. 그리고 한 5분 후에 물에 흠뻑 젖어서 돌아왔읍니다.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읍니다.

나는,

"이번은 내가 탈 차례다."

라고 하였읍니다.

모오레드는 말에서 내렸읍니다.

"타라!"

나는 말 잔등이에 올라 탔읍니다. 그리고 잠깃동안 곱시도 겁이 났읍니다. 말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읍니다.

"말 옆구리를 찔러라. 무얼 기다리고 있니. 사람들이 일어나 돌아다니기 전에 말을 갖다 두어야 된다."

나는 말 옆구리를 찔렀읍니다. 말은 한번 더 뒷발로 서서 콧소리를 쳤읍니다. 그리고는 뛰어 달아났읍니다. 나는 어쩔 줄을 몰랐읍니다. 이번에는 말이 들판을 지나서 봇도랑으로 달아나는 대신에, 둑만 하라비안 접 포도원 길로 뛰어 내려가서, 포도 넝쿨을 뛰어 넘기 시작하였읍니다. 말이 일곱째 넝쿨을 넘어 갈 때 나는 말에서 떨어졌읍니다. 그리고 말은 그냥 뛰어 다라났읍니다.

우리 사촌 모오레드는 달음질로 뛰어 내려옵니다.

"얘! 넌 재찰다."

하고 모오레드는 외쳤읍니다.

"저 말은 붙들어야지 된다. 너는 저쪽 길로 가거라. 나는 이 길로 갈테니. 말이 있거든 친절하게 하여라. 내게 가까이 갈테니."

나는 그 길로 내려가고 모오레드는 들을 지나서 봇도랑을 향하여 갔읍니다.

30분이나 걸려서 모오레드는 겨우 말을 찾아서 데리고 왔읍니다.

"됐다. 어서 올라 타거라.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일어났겠다."

"어떻게 할테냐?"

나는 물었읍니다.

"글쎄, 도로 갖다 두든지 내일 아침까지 감추어 두든지 그러지."

모오레드 말 소리에는 근심스러운 데가 없었읍니다.

말을 감추어 두고 도로 갖다 두지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얼마 동안은……

"말을 어디다 감출테냐?"

하고 물었읍니다.

"감출 데 있다."

"언제부터 너 이 말을 훔쳤니?"

모오레드가 얼마 동안 내일 새벽이면 말을 혼자 타다가, 내가 몹시 말을 타기를 원하는 줄 알기 때문에, 나에게로 찾아 온 줄을 갑자기 깨달았읍니다.

"말 훔친 것에 대하여 누가 언제 무어라고 그랬니?"

"어떻든 언제부터 매일 아침 타기 시작했니?"

"오늘 아침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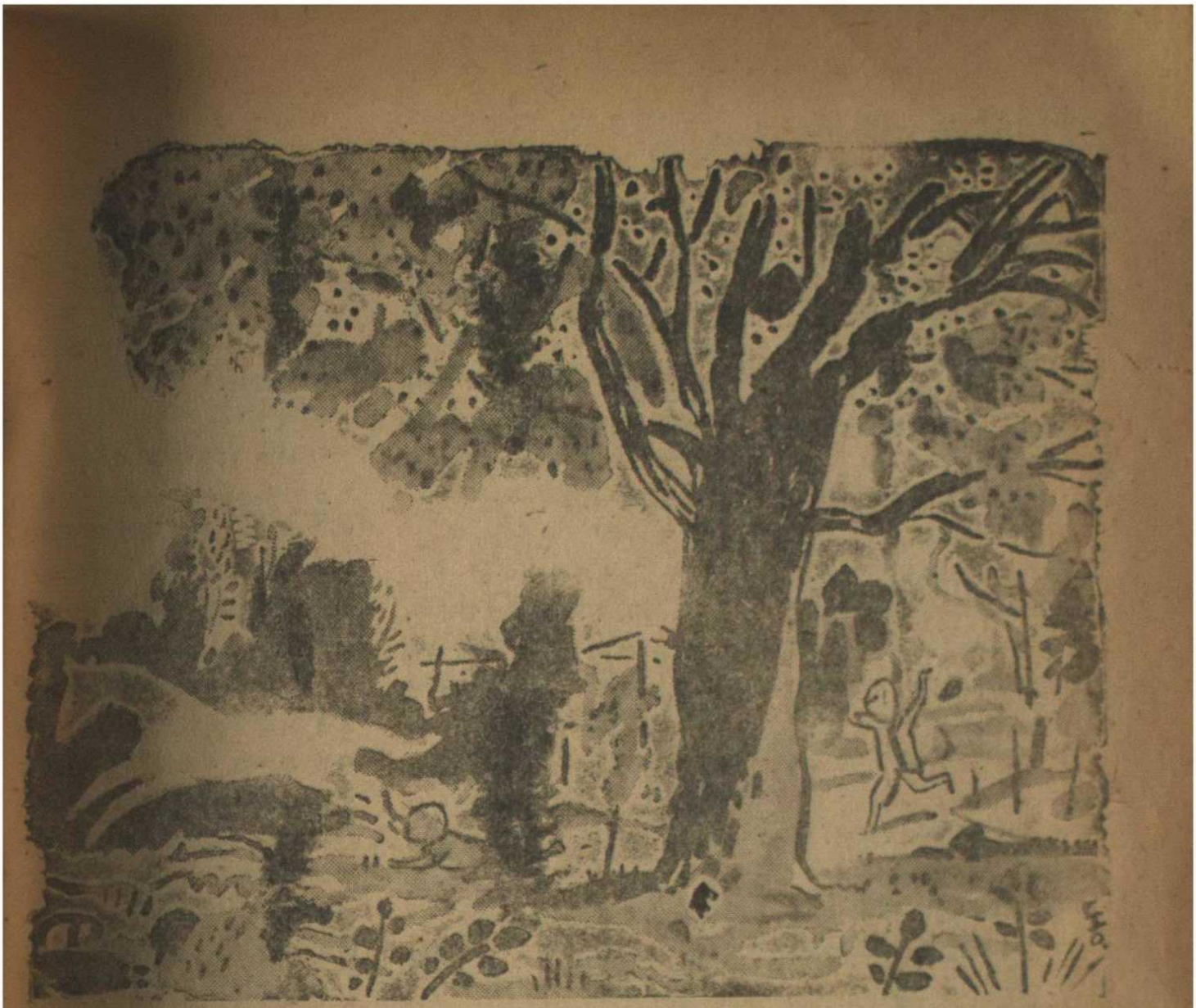
인 위 의 말 씀

★ 루 우 텔 (종교가)

거짓말은 눈뭉치와 같다. 그것은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 애 마 슨 (시인)

누가 싸우든, 누가 쓰러지든, 정의라는 것은 영원히 여기고 변함이 없다.



"정말이냐?"

"정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글키기는 그렇게 말해야 된다. 우리 둘이 다 거짓말장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네가 아는대로는 우리가 오늘부터 말타기를 시작하지 않았니?"

모오레드는 아무도 지금은 가지 않고 대신 문, 한 포도원 속에 있는 외양간으로 말을 가만가만 끌고 갔읍니다. 이 포도원은 예전에는 농부 펠바티안이 자랑할만큼 잘 가꾸었었읍니다. 외양간에는 지금도 보리와 마른 말먹이 풀이 남아있었읍니다. 우리는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였읍니다.

"그렇게 걸어 놓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모오레드는 몸냈읍니다.

"아아! 나도 그렇게 말하고 서로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게 되면 좋겠다."

"너는 아직 어린아이다. 너도 열 세살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집으로 가서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읍니다.

그 날 오후에 코스모브 아저씨가 커피차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러 오셨읍니다. 그는 사랑방에 앉아서 차를 조금씩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옛 그때 생각을 하시었읍니다. 그 때 손님이 또 한분 오셨읍니다. 이 양반은 아섹티아 사람인데, 너무 고독해서 아루메니아 말을 배웠다는 농부 콘비모이었읍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 고독한 손님에게 커피와 담배를 갖다 대놓았읍니다. 그 분은 담배를 말고, 차를 조금씩 마시고 담배를 피웠읍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슬프게 한숨을 쉬면서,

"지난달에 도둑맞은 내 친 말을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나는 어떻게 될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였읍니다.

우리 코스모브 아저씨는 화가 버럭히 나서서 소리를 지르셨읍니다.

"그것 해롭지 않이. 그까짓 말 한마리 잃어버린 것이 뭐야. 우리는 모두 마라를 잃어버리

지 않았나? 말 한마리 때문에 무얼 그러나?"

"당신 같은 도시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괜찮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차는 어떻게 됩니까? 말없는 마차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까짓 것 걱정말어."

하고 코스트브아저씨는 큰 소리로 야단했읍니다.

"여기 오느라고 오늘도 10마일(哩)을 걸었는데요."

"자네 두 다리가 있지 않나."

"내 왼편 다리는 아프답니다."

"그것 걱정말어."

코스트브 아저씨는 큰 소리로 야단했읍니다.

"60 딸라나 주고 산 말이에요."

그 농부는 중얼거렸읍니다.

"그까짓 더러운 돈!"

아저씨는 벌떡 일어나셔서 문을 메다부치고 뒷 밖으로 나가셨읍니다.

우리 어머니는 존 비트씨에게 노여워하지 말라고 변명을 하였읍니다.

"그이는 마음은 착한 분입니다. 그분이 고향 생각이 몹시 나서 우울하고, 그러고 몸이 큰 양반이어서 좀 갑갑합니다."

그 농부가 간 뒤에 나는 우리 사촌 모오래드 집으로 뛰어 갔읍니다.

모오래드는 배나무 밑에 앉아서 작은 새 새끼의 다친 날개를 고쳐주고 있었읍니다. 새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왜 왔니?"

"농부 존 비트씨가……"

나는 급하게 말을 하였읍니다.

"저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왔더라. 그런데 그 사람은 잃어버린 말을 찾고 싶어하더라. 너는 일찌 한달 동안이나 그 말을 갖다 두었더구나? 그렇지만 내가 타는 법을 다 배울 때까지, 그말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을 나에게 약속하여다고."

"말 타는 법을 네가 배우려면 일년은 걸릴 것이다."

모오래드는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일년 동안 두어두면 되지 머."

내 말에 모오래드는 깔깔 웃어 일어났읍니다.

"무엇?"

하고 그는 큰 소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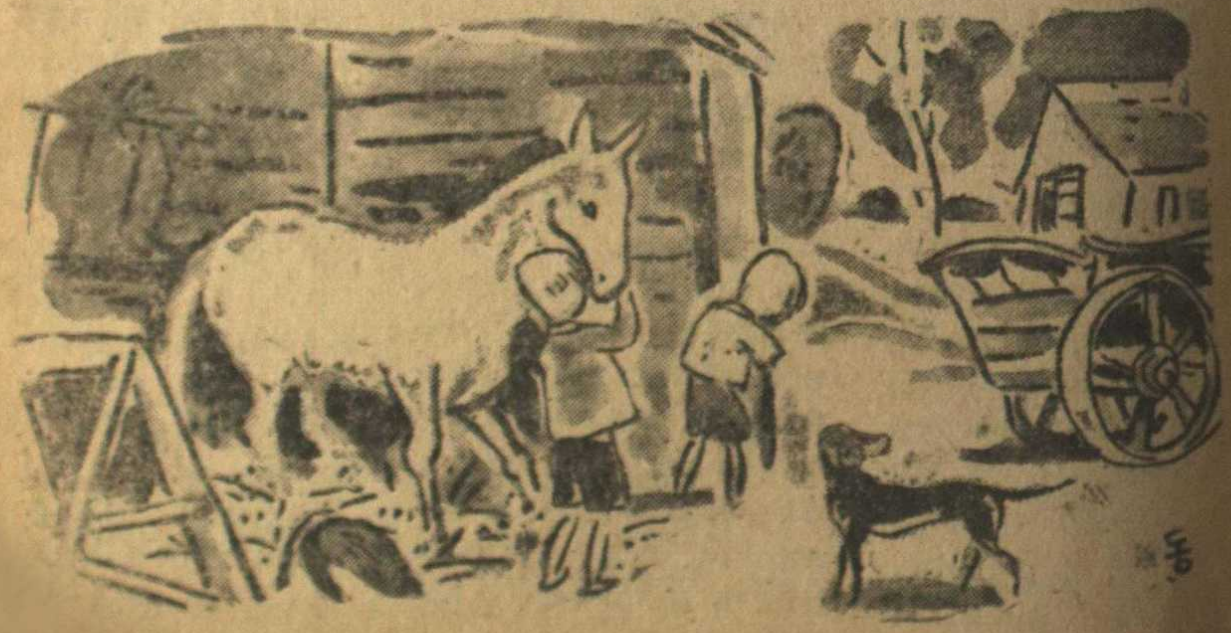
"너는 그래 가로그란니안 일가 사람을 도둑놈을 만든 작정이냐? 말은 제 주인한테 돌려 보내야 된다."

"언제?"

"늦어도 여섯달 후에는."

모오래드는 새 새끼를 공중에다 날렸읍니다. 새는 두번이나 땅에 떨어지며 애를 쓰다가, 마침내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읍니다.

2주일 동안 매일 같이 아침에 우리 사촌 모오래드와 나는, 그 의 따른 포도원 외양간에서 말을 끌어내다가 타고는 하였읍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언제나 나 혼자 탈 차례에는, 그 말이 포도넝쿨과 칙은 나무들을 뛰어 넘고, 그러고 나를 내동댕이를 치고 저 혼자 달아나 버렸읍니다. 그렇지만 나는 언제든지 모오래드처럼 타는 법을 배울 때가 있기를 바랐읍니다.



어떤날 아침에 우리가 탄 말은 그 모도원 가는 길에서 농부 존 비모와 마주쳤읍니다.

모오래드는 나보고 하는 말이,

"내가 이야기할테니 너는 가만히 있거라. 나는 농부를 다루는 법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존 비모씨."

하고 모오래드는 그 농부에게 인사를 하였읍니다.

그 농부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읍니다.

"너희들이로구나. 잘들 있었니? 그런데 너희 말 이름이 무엇이냐?"

"마이 하아트 (나의 사랑) 이랍니다."

하고 모오래드는 아루메니아 국어로 대답했읍니다.

"아름다운 말에 맞는 아름다운 이름이로구나. 몇주일 전에 내가 보둑밭은 바로 그 말이다. 입 안을 좀 들여다 봐도 좋으냐?"

"그러믄요."

모오래드는 서슴지 않고 말했읍니다.

그 농부는 말의 입 안을 들여다 보았읍니다.

"잇발 하나 틀리지 않어. 내가 너의 부모를 모른다면 이것이 바로 내 말이라고 맹세라도 하겠다. 너의 집안이 정직하기로 유명한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네 말하고 꼭 쌍둥이로구나. 내가 남을 의심하는 사람이라면 눈으로 보는 것만을 믿을 것이다. 자아 또 보자."

그 이튿날 아침 일찌기 우리는 말을 존 비모씨 농장으로 데리고 가서 외양간 속에 집어 넣었읍니다.

그 집 개들은 우리를 보고 짖지도 않고 따라만 다녔읍니다.

"개들이 우리 보고 짖을줄 알았다."

나는 모오래드 귀에 대고 속살거렸읍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짖을 것이다. 나는 개 다루는 법이 있다."

모오래드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 사촌 모오래드는 말을 힘껏 꺼어 안고, 제 코를 말 코에다 대고 문질렀읍니다. 그러고 두더두더 쓰다듬어주고 왔읍니다.

그날 오후에 존 비모씨는 마차를 타고 우리 집에 와서 보둑밭았다가 다시 들어온 말을 우리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읍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읍니다. 말이 전보다 더 튼튼해지고 성질도 더 좋아졌읍니다. 다 하느님의 덕택입니다."

이렇게 그 농부는 좋아서 이야기하였읍니다.

그 때 사랑방에 계시던 우리 아저씨는,

"떠들지 말게 떠들지 말어. 자네 말이 들어 왔다지. 그것 저 정하지 말어."

하고 소리를 지르셨읍니다.

그림•임 동 은

글 •조 빙 덕

동 요

무럭무럭 자라고

권 래 웅

아기 토끼 흰 토끼
풀을 먹고 자라고,

어른 토끼 될때까지
깡충 깡충 자라고,

아기 소 황송아지
여물 먹고 자라고,

어른 소 될때까지
겅중 겅중 자라고,

우리 아기 세살백이
맘마 먹고 자라고,

나라 일군 될때까지
무럭 무럭 자라고.

그림 • 한 홍 래

우리 나라에서 신소설을
누가 제일 먼저 썼나?

국초 이인직 선생

우리 나라에는 춘향전(春香傳)이니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니 심청전(沈淸傳)이니 하는 이야기책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책은 고대소설이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이 쓴 것이지만, 그러면, 요새 여러분이 많이 읽는 신식 이야기책을 맨처음에 쓴 사람은 누구이겠읍니까? 이 신식 이야기책 즉 신소설을 제일 먼저 쓴 분은 국초 이인직(菊初 李人稙) 선생이십니다.

이 선생은 서울 태생으로 처음에는 정치가가 되려고 김옥균(金玉均)을 따라서 일본에 갔었읍니다. 동경에서 이리저리 다니는 동안에, 어려 가지 일은 뜻대로 안되고, 그러는 사이에 삼십 칠 륜을 타서, 그 때 일본에서 발행된 소설들을 모조리 읽었읍니다. 그 때 일본에는 외국 소설도 번역되어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또 일본 사람들도 새 소설을 쓰기 시작했읍니다. 이것들을 이 선생은 죄다 읽었읍니다.

이렇게 몇해를 지낸 뒤에, 선생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읍니다. 돌아와서 일본에서 배나 글이 지나던 여러 동지들과 우선 신문을 발간하였읍니다. 만세보(萬歲報)란 신문이 이 선생이 처음 기자생활을 하던 신문이었고, 그 뒤에 대한신문(大韓新聞)을 이 선생 자신이 발간하였읍니다.

그래서 이 신문들에 처음 실린 소설이 "혈루(血淚)" "은세계(銀世界)""귀의성(鬼聲)""치악산(雉岳山)" 등이었읍니다. 그 내용으로 말하면 대개 우리네 가정에서 일어난 시부모와 며누리의 싸움, 전실자식과 계모와의 불화 같은 것이지만, 그 중에 "은세계(銀世界)"란 소설은, 그 때 우리 나라의 못된 관리들의 생활을 그린 일종 정치 (政治) 소설이었읍니다. 즉 그 내용은 강릉(江陵)에 사는 부자가, 젊었을 때에 가진 고생을 해가지고 푼푼이 모은 재산을, 강원감사 (江原監司) 라고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한테 까닭 없는 죄명에 걸려서 몹쓸 형벌을 당하고, 필경에는 재산을 다 빼앗기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때는 이런 일이 많았을 것으로, 소설이란 그 시대를 거울 같이 반영하는 것이니만큼, 이 선생이 이런 소설을 썼다는 것은 늘 이 알아주어야 할 일입니다.

이 선생의 글은 지금 읽어보아도 명문이 많으며, 선생은 이 글을 쓰실 때에 퍽 고심해서, 원고지를 찢고 또 쓰고 한자 한자 박고 저더서 썼다고 합니다.

이 소설을 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마흔 서너해 전 일본과 아라사(俄羅斯)가 전쟁을 한 바로 뒷일이었읍니다. 서력 1906년경이라고 합니다.

이 선생은 이렇게 신소설을 처음 썼을 뿐 아니라, 연극(演劇)에도 선각자이어서, 원각사(圓覺寺)가 선생 때문에 되었다는 말이 있읍니다.

최우간 이 선생은, 우리 나라 새 문학의 창시자(創始者)로 우리들이 기억해 두어야 할 분입니다.

글 • 조 용 만

십오소년
十五少年

쥬울스 • 베르느 지음
이 경 열 번역

세계에서 제일 재미있는 프랑쓰 소년소설! 태평양 한 복판 어느 무인도에 표착한 열다섯 소년이 굶주림과 맹수와 그리고 악한들과 싸워 나가는 너무나 아슬아슬하고 재미있는 소설.

(十五少年의 한 장면)

책값 • 전편 200원 • 후편 170원

돌아와는데 • 有吉 • 書販 • 乙酉 • 그밖에 책사마다 있읍니다.

☆ 재미있는 화폐이야기 ☆

돈이란 무엇인가?

① 화폐의 기원(起原)

한말로 화폐(돈)이야기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화폐가 언제부터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하고 발전해 왔느냐에 대한, 즉 화폐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다들 아시는바와 같이, 물건의 귀하고 흔한 것과, 가볍고 무거운 것을 재기 위하여서는, 자, 말, 저울 같은 것이 있는데, 물건의 값을 재는데는 화폐란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필요한 물건은 이 화폐로써 서로 팔고 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주 오랜 옛날 같이 화폐란 것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얻었겠읍니까? 그 때는 직접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즉 물물교환(物物交換)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자기가 소용되고 갖고 싶은 물건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수효가 점점 늘어가고, 사람의 지혜가 점점 발전되면서부터 분업(分業…서로 서로 자기 재주와 성질에 맞는 일을 함으로써, 일을 빨리 하고 편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발달되어, 농군들은 농사를 지어 쌀을 만들고, 나뭇군은 나무를 잘라 목재와 장작을 공급(供給)하고, 어부는 물고기를 잡고, 또 이런 사람은 옷감을 짜는 등, 이렇게 되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얻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데, 화폐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아직 무엇을 하나 일정하게 정하여서, 화폐로 쓸 생각은 못하고, 할 수 없이 자기가 만든 그 물건과 다른 물건과 바꾸게 되었읍니다. 옛날에는 이와 같이 소와 물고기, 옷감과 쌀, 이렇게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물물교환은 여

로오마의 동화

러 가지 불편하고 나쁜 점이 많았으니, 즉 예를 들면, 옷감짤는 사람이 물고기를 얻으려고 어부에게 가져가더라도, 만일 어부가 옷감이 필요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는 소를 한필 가지고 간다 손치더라도, 조그만 옷감과 바꿀 때, 소가 비싸다고 무엇을 거슬러 받아야 되는지? 소를 쪼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업이 발달되어, 제산이 복잡해지고 물건의 교환이 빈번해짐에따라, 차차 불편을 느끼고 어떻게하면 더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것이 화폐, 즉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고 보시는 것 같은 돈입니다.

② 수렵(狩獵)시대의 화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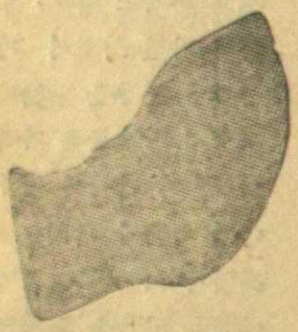
화폐의 제일 오래된 것은 가축이었읍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조상은 짐승의 가죽이라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수렵시대란 사람의 역사가 제일 오랜시대로, 그때 사람들은 모두 사냥들을 하고 살았으니까, 사람들의 재산은 모두 사냥하여 잡은 짐승들입니다. 그러나 고기는 금세 상하는 까닭에 오래 둘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므로 고기는 먹고, 남은 가죽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부자인 동시에 존경을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죽을 갖고 싶어 하고, 가죽과 바꾸는 것을 좋아한 까닭에 이것을 화폐로 했던 것입니다. 옛날 로오마라는 나라에서는 가축을 화폐로 했다는 것이 역사에도 나타나 있고, 또 노서아(지금의 쏘비엣트)에서는 근세 페트로대제(大帝) 때까지도 이것을 사용했다 합니다. 또 아메리카 어느 회사에서는, 본토인(本土人) 아메리칸 인디안과 물건을 팔고 사는 데에, 요즈음까지 이러한 가죽을 썼다고 하며, 지금도 남방 야만인들 사이에는 이러한 것을 돈 대용으로 쓰고 있다 합니다. 아무튼 그 시절에는, 그때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 것을 화폐로 만들었다는 것만은 사실이라 하겠읍니다.

③ 목축(牧畜)시대의 화폐

수렵시대의 사람들은, 산이나 들에 사는 새나 짐승들을 잡아 생활을 하였으나, 인구가 점점 느는한편, 짐승들이 차차 적어짐에 따라, 이 수렵만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낸 것이, 짐승들을 집

① 금속제 도화(刀貨)

이나 넓은 들판에서 사람의 손으로 기른다는 것입니다. 즉 목축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리하여 귀중한 재산은 가축으로부터 가축으로 옮겨졌읍니다. 소나 말, 돼지, 양 등의 가축이 지금의 돈 노릇을 한 셈이지요. 여기 있는 그림①은 로오마의 동화(銅貨=구리돈)인데, 속에 소가 그려져 있는 것은, 옛날에 소가 화폐였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② 중국의 어(魚) 화폐

④ 농업(農業)시대의 화폐

시대가 점점 진보함에 따라, 이리 저리 돌아다니며 살지 않고, 일정한 곳을 택하여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길러 살게 되었읍니다. 즉 농업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리하여 가축 대신에 보리나 쌀, 밀 등이 화폐노릇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자유로 나눌 수도 있고, 또 그 분량에따라 값을 올릴 수도 있는고로, 가축이 화폐였을 시절보다는 퍽 편리하였읍니다. 북아메리카 인디안들은 지금도 담배를 화폐로 쓰고 있지만, 이러한 것 역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없고 나르기 불편하여,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조그맣고 간단하고 가벼운 것을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⑤ 미개(未開)시대의 화폐

이 시대에는 앞서 말씀한 것들 외에, 칼이나 물고기 조개껍질 등을 화폐로 썼읍니다. 여기 있는 그림②는 중국의 화폐로 쇠로 만든 칼입니다. 화살촉 모양으로 만든 화폐도 있어, 이것으로보아 미개시대에는, 무기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나를 알 수 있읍니다. 세겟번 것은 물고기 모양을 한 중국의 조개껍질 화폐로, 이것으로 보아 물고기가 화폐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화폐로 한 것이지만, 이밖에 장식품(裝飾品)을 화폐로도 하였읍니다. 이런 것은 오래 보존할 수도 있고, 또 서로 주고 받는데도 편하여 널리 쓰였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쓴 것이 조개껍질이었읍니다.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인 아주 오랜 옛날, 중국에 은(殷)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임금이 조개껍질로 만든 돈을 썼읍니다. 이것을 패화(貝貨④)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의 시초라 말하고 ④ 중국의 패화(貝貨) 있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자를 배운 일이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생각난대로 조사해 보면, 매(賣) 매(買) 재(財) 빈(貧) 화(貨) 구(購) 저(貯) 등, 재산이나 경제에 관한 한문글자는 대부분이 조개 패(貝) 자가 붙어 있읍니다. 이러한 것들은 중국에서 처음 글자가 생겼을 때, 화폐 (돈)로 조개껍질을 썼던 까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가벼기는 하지만, 떨어뜨리면 당장 깨이고, 또 너무나 흔하였기 때문에 금이나 은, 또는 구리로 돈을 만들 생각을 하게된 것입니다.

⑥ 상공(商工)시대의 화폐

상공시대라 말하면, 사람의 지혜가 극도로 진보하여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공업이 융성하게 되어, 상업상(장사)의 교환 거래가 빈번하게 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엔 화폐를 벌써 금, 은, 구리, 철 같은 것으로 만들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화폐를 만들어 썼다는 것도 아주 오

④ 2800년 전 희랍의 은화(銀貨)

옛날로, 애굽트에서는 4000년 전부터 금으로 화폐를 만들어썼다 하며, 그림 ⑤는 희랍의 은화(銀貨)로 260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⑥ 중국 의 동화

또 앞서 말한 중국의 도화(刀貨)도 조개껍질화폐 시대를 지나, 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조개껍질이 구리로 되고, 다음에는 은으로, 또 금으로 되어온 것입니다.

⑦ 1700년 전의 인도 화폐

처음 화폐의 모양은 먼저는 칼이나 짐승의 모양을 흉내내었으나, 나중에는 동그랗게 만들어지고 중국에서는 동그란 화폐 가운데다 네모꼴의 구멍을 뚫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꿰이면 다루기 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뚫은 것일 것입니다.

여기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동양의 화폐와, 서양의 화폐와 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림으로 보시고 아시는바와 같이, 서양화폐에는 사람의 그림이나, 배나, 새, 꽃등을 집어넣었으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것에는 화폐가 만들어진 햇수(年號)등이 넣어진 것입니다. 먼저 있는 희랍의 화폐에는 인물과 부엉이가 들어 있고, 여기 있는 인도의 화폐에는 배가 그려져 있읍니다. 이것은 그 때 인도란 나라가 크게 해외(海外)로 진출하여 많이 활약한 관계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배를 나타낸 것입니다. 서양서는 또한 그 시대의 임금의 초상(肖像)또는 이름난 천재, 학자, 화가들의 초상들을 넣어 화폐를 만들었읍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나라가 틀리며는, 이와 같이 화폐까지도 틀린다는것을 이런데서도 엿볼 수 있읍니다.

글·최 재 수

조선어 학회 엮은

조선말 큰 사전

둘째 권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우리말의 큰 사전! 여러분의 학교나 교실에 또는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이책이 있어야 합니다. 더우기 이번 책은 미국에서 기부한 물자를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물건이 썩 좋읍니다. 선생님께나 아버지께 둘째권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여 구해 놓도록 합시다.

값 1,500원 • 책사마다 파는 중

을유문화사 발행

중학교 들기 위한

소년상식

1,000문답집

올에 상급학교에 가시는 분이나, 또는 내년에 가실 분,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싶은 분은 꼭 이 책을 지녀야 합니다. 이 책에는 지금까지 중학교에서 난 문제는 물론이요, 앞으로 나올만한 것을 추려서 모두 1, 000문제로서 그 바른 대답이 붙어 있으니 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나온지 며칠만에 뒤딱 없어져 재판을 하였읍니다.

책값 140원 • 굴벗집 엮음

아협발행

★연재 소설★

하얀쪽배 ⑤

정 인 택
그림·정 현 웅

영영 안오시나?

(1)

좋은 날씨가 계속되었읍니다.

몸날 같이 햇볕이 따스합니다. 눈녹은 물이 처마 끝으로 굵은 비오듯 주루룩 흘러내리고 있읍니다.

얼은 땅이 녹아서 온통 흙탕물이 된 비탈길을,조심조심 더듬으며 경애가 마악 큰길로 나서려는데,

"인제 가니?"

누가 뒤에서 불렀읍니다. 돌아다 보니까 너마장수 곰보할아버지였읍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셨에요."

경애는 공손히 허리를 굽혔읍니다.

"응, 어려날 못봤구나."

"네.제가 바빠서 가 뵙질 못했에요. 날마다 늦는걸요."

"그렇겠다. 아직 아무 소식두 못들었지?"

곰보할아버지도 늘 경애 아버지 소식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네."

경애는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울상을 하고 고개를 들지 못했읍니다.

"이상한 일이다. 자 어서 가자."

곰보할아버지와 경애는 나란히 서서 다시 걷기 시작했읍니다.

"그러지 않아두 너를 한번 만나서 조용히 의논하려구 했었는데……."

"네."

경애는 더소곳하게 그대를 숙인채 걷고 있읍니다.

"저어 다른게 아니라……"

곰보할아버지는 잠간 망서리는 듯 하더니,

"너, 그 마차 팔지 않으련?"

불쑥 이런 것을 물었읍니다.

"네? 마차요?"

"그래, 마차말이다. 너의 아버지가 여태 안오시는 것을 보니, 아무래두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신 모양인데……빌써 며칠째냐. 여러 가지두 생각해 봐두, 입맛해두 심상하지 않은 일이란 말야. 그러니, 하루 이틀 아니구 언제까지 그렇게 말을 놀려 둘수

도 없지 않니. 맥이구 시중 드는 것만 해두 큰 일이거던. 그러니, 내 생각 같애서는 팔아 치우는게 제일 상책일 것 같다……말두 그렇지만 마차두 쓰지 않구 두면 자꾸 헐어서……나중엔 널판지 값두 못찾게 되기 쉽구……"

경애는 곰보할아버지의 말을 가로막듯 외쳤읍니다.

"아버지 소식을 알 때까진 못팔겠에요."

곰보할아버지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으며,

"그야…… 그렇겠지. 그래야 옳지. 그렇지만……생각해 봐라. 지금까지 아무 소식두 없는걸 보면, 아무래두 오늘 내일 중에 너의 아버지가 돌아오실 것 같지는 않지 않으냐. 그러면 공연히 마차를 그렇게 놀려 두었다가……안될말루 도둑이라두 맞어 봐라. 그것보다는 차라리……"

"……"

이번엔 경애는 대답을 못했읍니다.

"……마침 우리 집에 먼 일가되는 사람이 한사람 와 있는데……그 사람이 너의 마차를 사겠다는구나. 내 잘 흥정붙여 줄테니 생각해 보렴."

"네."

전찻길에 나와서 그들은 헤어졌읍니다. 서로 갈 길이 달랐읍니다.

"내 이따가 저녁에 들르마."

"네."

경애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읍니다.

(2)

어떻게 그 날 하루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정신이 얼떨떨 하여 마차에 흔들리는 것이 전에 없이 괴로웠읍니다.

아버지는 어디를 가셨나?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어머니 돌아가신줄도 모르고, 어쩌자고 어린 딸을 혼자 내버려 두시는건가?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서 살아가야 하나? 아버지는 정말 영영 안돌아오시는 것일까?

영영 안돌아 오신다면……마차도 팔고 집도 팔고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영영 안돌아오신다고는 믿어지지 않았고, 또 그런 것은 생각하기조차 싫었읍니다.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있나. 아버지가 꼭 돌아오신다고, 그것도 또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경애는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라서 꿈 같이 하루를 보내고 전찻길에서 마차를 내려 걷기 시작했읍니다.

혼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해결도 지을 수 없을 것 같이 경애는 문득 최의사를 생각해 내고,

……옳지 최선생님헌테 의논해 봐야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모두 자기에게 친절했으나, 그 중에서 믿음직한 사람은 역시 최의사 밖에 없다고 경애는 생각한 것입니다.

"선생님!"

경애가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최의사는 간호부를 메리고 난로 앞에서 책을 읽고 있었읍니다.

"경애로구나. 인제 나오는 길

☆지금까지 대강이야기☆

비록 집은 가난하여 학교는 못가고 아버지가 부리시는 역마차를 따라다닐지언정, 경애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렇게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무슨 세상의 지꿎은 운명인지, 일시에 경애를 찾아든 쓰라린 불행과 괴로움. 집을 나가신채 영영 소식이 없는 아버지! 앓고계시던 어머니의 죽엄! 모오든 것은 어린 경애 혼자서 받아드리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가슴벅찬 슬픔이었다. 캄캄하고 깊은 숲속 함정에 빠진양, 끝없는 절망을 느끼는 경애였다. 친절한 곰보할아버지와 최의사를 따라다니며 어머니 장사도 끝내고, 마음도 몸도 지칠대로 지쳐 집으로 돌아온 경애!

그후 날마다 친절히 위로해 주는 동넷사람과 동무들의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랑에, 워낙이 꿈꿈한 경애의 기상은 힘을 얻어 새로운 생활의 길을 찾아 일을 한다. 경애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를 반드시 찾겠다는 생각 뿐이었다.

어느날 경애는 하루의 고된 일을 끝마치고 터박터박 춥고 쓸쓸한 밤거리를 집으로 걸어온다. 정신없이 걸어오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자기 집을 바라다보니, 아아! 이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아무도 없을 집에 웬 불이 훤하게 켜져있지 않은가? 아버지가 혹시……경애는 번개 같이 이러한 생각이 떠올라 두주먹을 불끈쥐고 뛰어갔다. 덤벅캄캄한 마루로 뛰어올라 문을 홱 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경애의 친한동무 기영이, 금란이, 상옥이 이렇게 셋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경애가 늦게 돌아와서 밥짓느라고 고생할 것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밥을 지어놓고 경애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한참 멍하니 문턱에 서 있던 경애는 기운없이 그자리에 주저앉으며 "아버지는 아니었고나" 하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세 동무들은, 친절하게 위로를 하고 저녁상을 갖다 주었다. 언제나 따뜻한 사랑! 그러고 서로를 애끼는 마음! 어느덧 그들 네 소녀의 손은 한데 뭉쳐져 굳은 악수를 하였다. 더욱 사랑하고 씩씩하게 살아가자고.

이냐?"

"네."

"클겠다. 어서 이리와 몸좀 녹여라."

"춥지 않어요. 길이 막 녹아서 질창이 됐는걸요."

"그래두……"

최의사는 경애의 등을 어루만지며,

"뭐 얼은게 있어야 안춥지. 이런게……고생두 퍽은 한다……"

애처로운 듯이 혀를 끌끌 차셨읍니다.

"서장허겠구나."

"아네요. 점심을 늦게나 먹었에요. 그리구, 집에 가면 동무들이 밥지어 놓았을텐데요 뭐."

"참 그렇데지. 나두 상우이헌테 얘기 들었다. 기특한 얼이다. 지금버텀 그렇게 서로 도와줄 줄 알아야 사람들이 되지. 좋은 동무가 많아서 경애는 참 다행이다."

"글쎄요……"

경애는 가만히 간호부가 앉았던 의자에가 걸터앉으며 대답했읍니다.

"왜 어디 아프냐?"

최의사가 경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읍니다. 경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퍽 않은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네요."

고개를 저으며 가냘프게 웃어보인 경애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선생님!"

하고 새삼스럽게 불렀읍니다.

"왜?"

최의사도 약간 놀란듯 정색을 했읍니다.

"선생님, 전 어떻게 했으면 좋겠에요? 혼자선 암만 생

각해두 모르겠에요."
"무엇을?"
"곱보할아버지가……결더러 ……마차를 팔라세요."
"마차를 팔라구……?"
"네. 너의 아버지가 여태 안 오시는 것을 보니, 아무리 생각해두 무슨 탈이 난 모양이라구……말이나 마차를 놀려 주느니 차라리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 두라구……그렇지 않으면, 말두 마차두 다 못쓰게 된다구요……지금 마차 안 팔아두 지 하나 먹고 사는건 걱정 없는데……마차를 팔았다가…… 비란길에 아버지나 돌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최의사는 연상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야기를 돋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꼭 돌아오실 줄 믿고 있에요……저 혼자 두구 아버지가 어디를 가시겠에요. 저는 못팔겠에요."
"……"
최의사도 얼른 결단을 내릴 수 없었던지 한참 묵묵히 앉아 있는데, 마침 안에 들어갔던 간호부가 나와서,
"선생님, 들어오시래요."
그 말을 듣자, 최의사는 벌떡 일어나서 경애의 손을 잡아 끌며,
"가, 안으로 들어가자. 들어가서 지녁먹으며 천천히 이야기하자."
"아네요. 인제 집에 가서 먹고 줘…"
사양하는 경애를 최의사는 끼안듯 하고, 복도를 지나 안으로 들어갔읍니다.

꿈결 같이

(1)

최의사 부인이 정성것 차려 준 저녁을 먹고 나서, 따뜻한 방 아랫목에 앉아 있으려니까, 경애는 온 몸이 녹아들어가는 듯한 피로를 느꼈읍니다.
하도 여러가지 걱정이 많아, 정신만은 더욱 또렷또렷해 가나, 몸은 자꾸 눕고만 싶었읍니다. 천 길 만 길 땅 속으로 끌려들어가는 듯도 했읍니다.
물끄러미 천장을 쳐다보며 담배만 뻑뻑 빨고 있던 최의사는, 이윽고 입을 열었읍니다.
"그래 네 생각은 어떻나?"
"네?"
"하루 이틀 아니구, 아무래두 너 혼자서 살기는 어려울 테데… 곱보할아버지 말씀두 옳기는 옳다…아무리 동넷사람들이 잘해 준대지만…그거야 다 한도가 있는 것이구…"
경애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을 뿐입니다.
"어대로 가다가는 아무래도 한번은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날텐데…글쎄, 내 생각에두… 말이나…"
최의사는 그렇게 말하는게 몹시 거북한 듯 잠간 망서리다가,
"…말이나… 마차나… 곱보할아버지 말씀대두 파는게 좋을 것 같애…"
경애는 그 말을 듣자 고개를 번쩍 쳐들고,
"아버지가 오시면 어떡허라구요…아버지가…"
악 쓰듯이 말하다가 말을 끗맺고, 다시 고개를 수그렸읍니다.
"그두 그렇지만… 작가가 나셨을 때 팔아야 제 값 받지 …글쎄다…"
최의사는 그렇게 권하는게 무척 거북한 듯, 말 끝을 흐리며 약간 당황해 하는 눈치입니다.
약따른 경애는 과연 무엇인지 깨달은게 있는 듯, 다시 고개를 쳐들고 눈을 동그랗게 떠서 최의사를 쏘아보았읍니다.
"선생님 선생님! 아버지 소식 들으셨에요?"
"뭐?"
"아버지 소식 들으셨지요? 말씀해 주세요, 네?"
경애는 최의사 앞으로 한걸음 다가앉았읍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경찰서에서…무슨, 통지 왔에요?"
"아아니, 그게 비란간에 무슨 소리냐. 내가 왜 소식을 들구두…"
최의사는 결코 네가 이렇게 아니리고 말하였으나, 그러나 경애는 곧이듣지를 않았읍니다.
"아네요 다 알아요. 그랬건데…선생님은 결더러… 자꾸 마차 팔라시지…말씀해 주세요…"
"아니래니깐… 그러는구나. 그럴 리가 있니. 내 생각엔 이 추운데 너혼자 고생하는게 모기 딱하구…말이나 마차는 그렇게 놀리느니 보다는…나중

에 또 살 수두 있으니까…"

경애는 최의사의 말을 다 듣지 않고 성난 얼굴로 벌떡 일어섰읍니다.

"그만 두세요. 안들려 주셔두 좋아요."

그렇게 내뱉듯 말을 던지고는, 화다닥 방문을 열어 젖히고 밖으로 뛰어나가며,

"내가… 내가 경찰서에 가서 …불어올걸 뭐…나는 못불어 오나…"

고무신을 끌고 미친 아이모양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읍니다.

밤중에 경찰서를 찾아 갔댔자, 무슨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겠읍니까.

숙직 경관에게 아무리 애원해야 알길이 없어, 경애는 엉엉 울며 경찰서 문을 나오려는데,

"경애야…"

최의사가 헐레벌떡 달려들어, 우는 경애를 넓은 품안에 꽉 껴안았읍니다.

미친 아이 같이 어둠 속으로 뛰어나간 경애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이, 필경 최의사는 경애의 뒤를 따라나온 모양이었읍니다.

그러나, 경애는 최의사가 고맙지를 않았읍니다. 도리어 밉살머리스러울 뿐입니다.

경애는 홱 최의사의 손을 뿌리쳤읍니다.

"몰라요…싫어요…"

날카롭게 몸을 떼친 경애는, 놀라서 눈이 둥그래진 최의사를 그 자리에 남겨 놓은 채, 다시 엉엉 울며 어둔 거리를 향하여 달음질 치기 시작했읍니다.

(2)

울며 집으로 뛰어들어온 경애는, 그대로 캄캄한 방 아랫목에가 픽 쓰러졌읍니다.

쌓이고 쌓인 피로가 일시에 몽터지듯 터져 나왔는지, 경애는 오싹 몸이 추워 오고, 오한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한참만에 간신이 눈물을 걷고 자릿ㄱ에 들어갔으나, 오한은 점점 심해갔고, 팔다리에 맥이 하나도 없었읍니다.

온 몸이 불덩이 같이 뜨거워 오는 것을 제 스스로도 잘 깨달을 수 있었읍니다. 두통까지 나기 시작하여, 눈 앞이 아찔하도록 골치가 아팠읍니다.

거의 뜬 눈으로 이 괴로움과 싸우며 겨우 겨우 하룻밤을 새웠읍니다.

그러나 신열은 종시 가시지를 않았읍니다. 그래도 또 억지로 눈을 붙여보았읍니다.

어느 때쯤이나 되어선지 밖에서 투벅투벅 발자취 소리가 나더니,

"경애야."

부르는 소리가 들렸읍니다. 틀림없는 곰보할아버지의 목소리였읍니다.

"네에."

경애는 퀴다랗게 대답하고 고개를 번쩍 쳐들었읍니다. 그러나 정신이 아찔하고 등골에 진땀이 쭉 흐릅니다. 일어날 기운이 없어 까무러치듯 힘없이 다시 자리에가 쓰러지고 말았읍니다.

"얘야, 이거 무슨 잠을 이렇게 늘어지게 자느냐. 벌써 해가 높다랗다…"

경애는 고개만 쳐들고 간신히 대답했읍니다.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일어…

…일어날 수가 없에요……"

그 대답을 들자 곰보할아버지는 깜짝 놀란듯,

"뭐? 일어날 수가 없어? 어디 아프냐?"

하면서 화닥닥 뛰어들어 오셨읍니다.

"아아니. 이게 대체 웬 일이냐?"

곰보할아버지는 경애 이마에 차디찬 손을 얹어 보더니,

"아이구. 이거 큰일 났구나. 원 이게 웬 변이람. 어서 최선생님을 모셔 와야겠군 그래. 뭇뭇."

곰보할아버지는 길길 뛰면서 혀를 끌끌 차고,

"밤에 늦게 다니니까 그렇지. 어린 것이 그러지 않아두 날은 춥구헐데……에이, 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었어, 에이, 참……"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나서,

"내 힝낭게 갔다 올테니 기동말구 잠간만 그대루 누어 있거라, 응?"

그리고는 부산하게 밖으로 나갔읍니다.

경애는 멍하니 누어 그것을 바라볼 뿐, 이미 입을 열 힘조차 없는듯 했읍니다.

"원 글세……고 어린 것이……밤 늦게 이딜 쏘다니더니."

동요

봄바람

김 영 수

봄바람은 들창을
열어줍니다.
산에 있던 새들을
데려옵니다.

봄바람은 들창에다
놓고갑니다.
팔랑팔랑 한장의
어여쁜 꽃잎.

그림 • 한 흥 택

이윽고 이런 곰보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경애야. 경애야. 최선생님 오셨다. 정신좀 채려라…"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왔읍니다.

"아아니 엊저녁꺼지두 멀쩡허드니……어떻게 된 일이냐 대체……"

최의사도 얼굴 빛이 변해서 뒤따라 들어 오자마자 경애의 손을 잡았읍니다.

"이거, 열이 대단허구나. 숨소리가 이상한걸."

"최의사가 청진기를 꺼내어 바야 진찰을 시작하려 할 때, 경애는 최의사의 팔에 매달려,

"서…선생님."

목 쉬인 소리로 불렀읍니다.

"선생님, 아……아버지 소식 ……소식 들으셨으면… 들려 주세요. 말씀하시지않으면… …저는……저는…… 저는 진찰 안받겠어요."

울음 쉬인 목소리로 말하고 나서, 경애는 마친 듯이 최선생의 손에서 청진기를 떼앗았읍니다.

"아아니, 너 아저 무슨 것이냐? 빨리 진찰을 받구 약을 먹어야……"

곰보할아버지가 당황해서 가로 막으려는 것을 경애는 책 뿌리치고,

"아네요, 할아버지는 모르세요, 가만히 기세요."

그리고는 또 최의사-쪽을 향하여,

"선생님, 정말에요. 알고 계시면서……왜 안가르쳐 주세요……"

경애의 울음섞인 애원을 듣자, 최의사의 눈에도 눈물이 어렸읍니다.

최의사는 가만히 경애의 손을 떼어놓고 자리를 고쳐 앉았읍니다.

그러나 열른 입을 열지는 않았읍니다. 최의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려는지……그것이 궁금하여 경애 뿐 아니라 곰보할아버지까지 엄숙한 표정을 하고 마음을 도사렸읍니다.

—계 속—

눈물을 먹음고 애처로운 듯 다정한 눈으로 경애를 내려다보는 최의사 입에서는, 과연 무슨 말이 나오려는가? 말을 할 듯 할 듯 하면서도, 차마 못하고 주저하는 최의사! 정신없이 앓으면서도 잊지못하는 그리운 아버지의 생각과 모습을 안타깝게도 눈앞에 그리며, 최의사의 입만 바라보는 가여운 경애! 나아갈수록 점점 눈물을 자아내는 여러 동무들의 소설 "**하얀 쪽배**"와 같이 손꼽아 다음 달치를 기다리십시다.

(편집실)

어린이날 기념 네번째 모집한

현상 동요와 작문

입상자 발표

전국 각지 각학교에서 마감날까지 몰려온 작품은, 동요 9,007편, 작문 7,523편이나 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신중히 심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당선자가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번치의 결과로 보건대, 동요에는 입상자 수가 예정보다도 두편이 늘었으나 작문에는 특등이 없으며, 우등도 셋 뿐이며, 입선도 여섯 밖에는 없는 것이 눈에 띠운다. 그리고 올에는 학교상을 타갈만한 학교가 없었다. 되도록 많은 작품을 뽑고 싶은 것은 심사위원들의 인정이었으나, 작품을 엄하게 고르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일이었으니, 정성을 들여 보낸 여러분들은 이것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그런데 이에 당선된 분에게는 상품과 상금을 오는 칠월 보름날까지에는 각기 학교로 보내기로 한다.

그리고 당선 작품 전부는 "소학생" 7월치에 하나도 빠짐없이 싣겠으며, 심사하신 여러 선생님의 자세한 비평을 곁드리어 싣겠으니 "소학생" 7월치를 기다리시라.

동 요

특 등 (상장과 상품과 상금 5,000원)

땅속에 누가 있나봐

서울 장충 국민학교 5년 차 중 경

우 등 (상장과 상품과 상금 2,000원씩)

1 아기의 잠
강원도 춘천 군민 학교 4년 이 경 희

2 샘 물
서울 영희 국민 학교 5년 이 재 송

3 종이 비행기
서울 남산 국민 학교 5년 권 민 수

4 빨 랫 줄
인천 창영 국민 학교 3년 조 성 희

5 소
인천 서림 국민 학교 3년 [illegible] 영 자

입 선 (상장과 상품과 상금 1,000원씩)

1 아버지
경남 사천군 용산 국민 학교 6년 김 형 태

2 연자방아
경기 연백군 홍현 국민 학교 5년 조 숙 녀

3 색시호롱
서울 청운 국민 학교 1년 이 영 로

4 나의 가방
인천 서림 국민 학교 3년 이 장 희

5 돼 지 막
경남 함양군 병곡 국민 학교 4년 신 상 용

6 개 구 리
수원 성호 국민 학교 3년 서 익 원

7 흘러가는 물
서울 창산 국민 학교 5년 권 혁 조

8 산 고 개
서울 북성 국민 학교 5년 정 부 영

9 섣달 그믐날 밤
서울 사범대학 부속 국민 학교 5년 이 현 영

10 우리 할아버지
충북 청주 교동 국민 학교 4년 박 성 희

11 소꿉놀이
개성 선죽 국민 학교 2년 유 금 자

12 괭이치기
서울 홍연 국민 학교 2년 김 순 민

작 문

특 등 해당자 없음

우 등 (상장과 상품과 상금 2,000원씩)

1 후원회비
충북 봉양 국민 학교 5년 김 단 천

2 아버지를 찾아서
전북 부안군 진서 국민 학교 5년 유 진 영

3 제 비
충북 청주 비상 국민 학교 2년 변 복 례

입 선 (상장과 상품과 상금 1,000원씩)

1 새 책
충북 진천군 만승 국민 학교 4년 홍 봉 석

2 참 새
충남 청양군 화성 국민 학교 6년 박 경 희

3 누나의 졸업
서울 사범대학 부속 국민 학교 4년 백 병 기

4 우리 동생 봄시내
전북 전주 중앙 국민 학교 5년 윤 석 철

5 통 신 부
서울 사범 대학 부속 국민 학교 6년 이 용 숙

6 세금과 어머니
경기 연백군 홍현 국민 학교 4년 채 남 순

학교상 • 해당학교 없음

소학생 7월치에 작품 [illegible]와 비평이 실린다

발명 이야기 *
무선전신은 어떻게 발명되었나?

박 동식

19세기의 막이 바야흐로 닫혀지려던 그 무렵, 전기학(電氣學)은 대체 어디까지나 진보 발달되어 있었는지? 이것을 조사해 본다면, 인류가 오랫동안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던 무선전신(無線電信)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어느 한 사람의 손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또 이것이 이루어질 모든 요소(要素)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이었읍니다. 즉 이탈리아에서는 오네스티여 리지이교수, 프랑스에는 루랑리이, 영국에는 오리버아•롯지, 아메리카에는 니코라•테스라 등 여러 사람이 이 문제를 풀기에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밖에도 많은 연구가들이 있었지요.

승리는 22세의 젊은 청년에게로

그러나 이렇게 연구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전에 대한 진보는 소걸음같이 아주 느리어, 어린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며 한 발 두 발 떼어 놓듯이, 고금에 조금씩 오랜 세월을 두고 최후의 확정인 결승점에 가까워간 것입니다. 그러고, 그것이 19세기 말에 이르러 누가 제일 먼저 실제로 쓸 수 있는 무선전신을 발명하느냐 하는 최후의 점에 다달으게 된 것입니다. 전기학을 연구한 대 학자가? 혹은 대학 교수가? 그렇지 않으면 경험이 많은 발명가가? 아무튼 무선전신의 발명가란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리라고 일반은 기대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여러한 꿈은 보기좋게 깨어지고 말았읍니다.

"22세의 젊은 이탈리아의 청년이, 드디어 무선전신을 발명하였다."

이러한 뉴우스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 전하여졌을 때, 너무 뜻밖이라 자기 귀를 의심한 사람도 여럿이었었다고 합니다. 이 이탈리아 청년 말코니이에 대해선 나중 말하기로 하고, 그보다 먼저 그가 무선전신 발명에 손을 대었을 때, 전기학이 어디까지 진보되어 있었나를 대강 이야기하겠읍니다.

독일의 헤루쓰 교수가 1888년에,

"우리들 주위에는 어느곳을 막론하고 "에에텔"(특이한 성질이 있는 무색의 액체)이란 것이 있어, 이 "에에텔"은 확실히 전자파(電磁波)를 전한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믿고 발표한 후부터는 여러 학자들이 다투어, 이 이상한 물질을 전기 통신에 사용한다면, 참으로 재밌을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에에텔"을 어떻게 하여 먼곳에 전하고, 또 그것을 받는데 어떠한 수신장치(受信裝置)를 만들어야 좋은가를 알지 않으면 안됩니다. 앞서 말한 독일의 헤루쓰 교수는, "에에텔"의 물결을 만들기 위하여 축전기(蓄電器…전기를 담아 두는 기계)의 전기를 방전(放電)시켰읍니다. 그리고 둥근 굴레 모양의 선이 있는 검파기(檢波器)를 가깝게 가져가면, 스파아크(불꽃)가 사방으로 날으는고로, 전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읍니다. 그 후, 에드워어드 루랑리이 교수는, 그릇 속에 넣은 어떠한 종류의 금속(金屬)가루가, 전파 때문에 급히 전기를 전하는 것 같은 상태로 변하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래서 교수는, 유리통 속에 양쪽으로 금속선(線)을 넣고, 그 중간에 금속 가루를 가득 담은 후, 전지(電池)와 검류계(檢流計)가 있는 회로(回路)에다 감아매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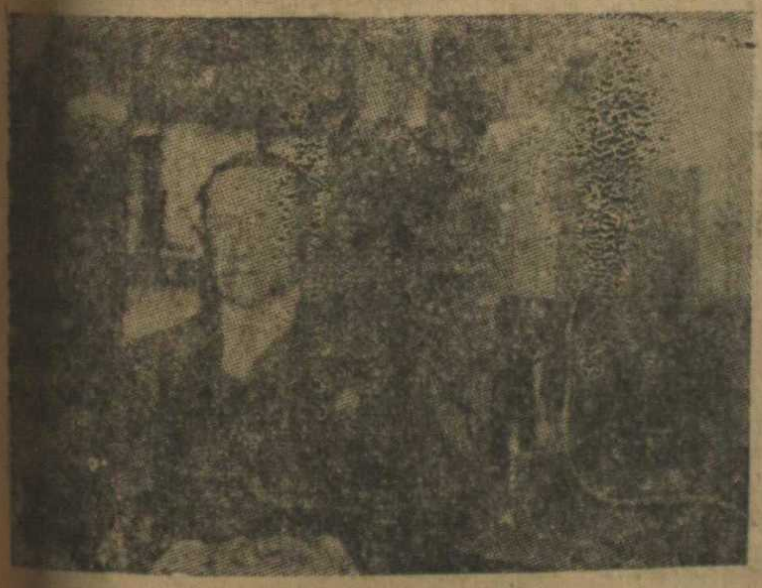
영국의 오리버아•롯지는, 이 장치를 "루랑리이의 코히이아"라고 이름지었으나, 이것은 헤루쓰 교수의 검파기보다도 훨씬 기능(機能)이 훌륭하였읍니다. 그

때서 동지는 1894년 처음으로 전파를 발하는 발신기(發信器)와, 이 전파를 검파하는 "코히이라"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무선전신법을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무선전신에 필요한 공중선(空中線) 이것 또한 말코니이 이전에 벌써 알려져 있던 것입니다. 즉 1890년에, 공중선을 뛰어다란 연에다 매달고, 배의 마스트(돛대)에 달았던 것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런 무선(無線)에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모두 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읍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을 적당히 나누고 합하여, 머언곳으로부터 온 전파를 확실하게 수신하는 장치를 생각해낼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전기를 제일 좋아했다

무전왕(無電王)그리에에루모ㅇ말코니이는 1874년 4월, 이탈리아 북부 보르오니아에서 낳았읍니다. 아버지는 이탈리아에서도 손꼽는 큰 부자였읍니다. 말코니이의 어릴때와 좀 큰뒤, 즉 소년시절에는 그리 별 신통한 이야기는 없읍니다. 기차를 발명한 영국의 스티븐슨이, 진흙이나 밀대로 증기관(蒸氣罐)의 모형(模型)을 만들었다든지, 아메리카의 세계적 발명가 에디슨이, 알이 깨이는 것을 실험하기 위하여 하루 종일 알을 품고 둥우리 속에 엎드려 있었다던 것과 같은 재밌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읍니다. 다만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전기를 좋아하여, 틈만 있으면 전선이나 전지, 혹은 지남철 등을 사가지고 와서 실험을 해보는 것이었읍니다. 또한 그는 책으로만 읽을 뿐 아니라, 보고 들은 모오든 것을 실제로 만들어서 연구해 보지 않으면 심평이 퍼지를 않았다 하니, 아마 후에 대 발명가가 된 것은 이 때부터 조금씩 싹트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읍니다.

헤루쓰 교수가 저 유명한 전파 실험을 하였을 그 무렵, 말코니이는 겨우 14세의 소년이었읍니다. 한번 이 헤루쓰 교수의 실험기사가 이탈리아에 전하여지자, 14세 먹은 소년은 눈을 크게 뜨고 그 기사를 읽고 또 읽었읍니다. 그러고난 뒤 그는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넓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공상한 것입니다. 소년시대란 누구나 다 으레히 한번씩은 이루어지지 못할 그러한 신기하고도 웅장한 공상들을 할 시절입니다. 말코니이도 또한 그래서 헤루쓰 교수가 성공한 전파의 실험이나, 또는 학교에서 배우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벌써 전파의 장래에 대하여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상상을 그려냈던 것입니다.



무전 기계실에 있는 말코니이

학교를 마치고 그는 곧 고향 넓은 자기 집에다 높은 작대기를 세우고 철사를 달고, 송신기를 움직여 연구를 시작하였읍니다. 머리가 뛰어나게 좋고 재주가 있는데다가, 사고싶은 신식 전기기계는 얼마든지 살수 있는 말코니이인지라, 마음대로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만큼, 다른수 많은 발명가와 과학자에 비한다면, 정말 행복한 처지에 있었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연구는 점점 진보하여, 드디어 선배들의 연구를 물리치고, 그 이듬해인 1896년에는 2마일 가량의 거리라도 통신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는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탈리아 정부에 특허(特許)를 신청하는 한편, 어머니가 계신 영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무선전신의 연구에 더욱 힘썼던 것입니다.

말코니이가 누구보다도 먼저 2마일 가량의 거리를 통신할 수 있었던 무선통신 장치는, 선배들이 발견하고 발명한 기계와 기구가 교묘하게 쓰였었읍니다. 즉 장치에 쓴 모오든 것은, 전연 새로 만든 물건이 아니라, 모두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써가지고, 실용

적(實用的)인 무선장치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대서양 횡단 통신에 성공

영국의 어느 유명한 학자는 청년 말코니어의 대 발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적이 있읍니다.

"이 대 발명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생각케 합니다. 어느 때, 콜롬부스가 달걀을 세워놓을 사람이 있는가 하고 여러 사람에게 물었을 때, 모두들 그러한 것은 못할 것이리라 생각하였읍니다. 그러나 콜롬부스는 달걀 끝을 조금 깨뜨려가지고, 그것을 책상 위에 훌륭히 세워놓았읍니다. 이것을 본 여러 사람들은 "그까짓거,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야 누군 못하나"말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해 낸다는 것이 정말 문제가 아닙니까? 무선전신법의 발명은 곧 이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한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로, 한꺼번에 그대로 머무를줄을 모르는 말코니이는, 대서양 저쪽과 이쪽 사이를 전파로써 통신할 결심을 하였읍니다. 그는 착착 준비를 진행시켜가지고, 1901년 11월 초승께, 조수 두사람을 데리고 뉴우파운드랜드로 가서, 거의 2주일이나 걸려 아주 큰 연을 만들었읍니다. 두서너번 바람 때문에 불려가 실패하였으나, 기어이 같은 달 12일, 세인 바람에도 아무 일없이 100메터 가량이나 높이 올라갈 수있었읍니다. 그날 오정 때쯤 얼굴이 조금 햇볕에 껄은 말코니이는, 묵은 나뭇조각 집 속에서 열심으로 생각에 잠겨 있었읍니다. 책상 위에는 수신장치와 그 밖에 여러 가지 도구가 즐비하게 늘어놓여 있고, 이것을 달은 전선은, 창을 넘어 저멀리 푸른 하늘에 떠있는 연에 매달려있읍니다. 그는 수화기를 귀에다 댄 채 잠시 잠자코 있읍니다. 기뻐하는 기색은 조금도 얼굴에 떠있지 않습니다. "또 실패란말인가!" 이러한 불안이 두사람 조수들의 머리를 스쳤읍니다.

그러나 30분쯤 지난 후, 말코니이 얼굴에는 건강한 빛이 떠돌고, 무슨 신호를 들은 것 같았읍니다. 얼마 후 그는 수화기를 조수에게 주며,

"켄푸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알 수 없으니 자네 좀 들어보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조수는 그 수화기를 귀에다 대니, 한참 후, 세 번 흐미한 소리가 똑똑 똑똑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아주 알아서, 정신을 차려 듣지 않으면 듣지 못할만큼 작은 소리였으나, 틀림없는 모오루스 신호의 S자를 나타내는 표였읍니다. 영국의 코온워얼연안(沿岸)에 있는 조우즐 우송신소(送信所)에서 발신된 것으로, 1,800마일의 넓은 바다를 건너 전선을 통하지 않고 온 전파입니다. 실로 이 순간 인류의 문명은 일대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성공한 지 겨우 5년만에 이렇게 훌륭히 성공한 것은, 오로지 말코니아의 젊은 학도적 노력과, 끈임없는 연구의 결과라 하겠읍니다.

★백두산이야기★④

백두산과 개마고대

홍 종 인

A. 백두산이 생기기까지

백암(白岩) 백암은 우리나라 지도 위에 나타난바로도 잘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와의 경계지점, 즉 도계(道堺)에 있는 갈주와 혜산진 사이의 철도 한 중간에 있다. 또 이곳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광막한 1500내지 2000메터의 고지대(高地帶)인 개마고대의 한 복판이라고 보아도 좋은 것이다. 갈주에서 이곳까지 기차가 올라오기는, 마치 소걸음 같이 엉기엉기 이렇게 골짜기를 치 올라와서, 다시 여기서부터 혜산진까지는 언덕바지를 내려가게 되는 곳이다. 여기야말로 조선의 척량산맥(脊梁山脈)인 저봉 등마루가 되는 곳이다.

백암의 표고(標高)는 1433메터. 산이 무너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일 뿐, 더 높은 산이라고는 앞을 가리울만한 곳은 없다. 멀리 북쪽으로 백두산과 장모봉(冠帽峰)에 잇달린 봉우리가 구름 사이에 넌지시 보일 뿐, 어디를 보나 산과 산이 접접이 싸이어 있지만, 더 높은 것도 더 낮은 것도 없이, 끝없는 바다에 큰 물결이 넘실넘실하는 것을 보는듯, 이것이 곧 개마고대의 대륙적(大陸的)인 장엄한 광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조선이 산악(山岳)의 나라이라고 하지만, 조선 산악의 높고도 웅장한 모습은, 북조선의 이 개마고대를 찾아야만 그 참맛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높기로 2000메터 급(級)의 산이 남조선에는 겨우 지이산(智異山=1915 메터)과 한라산(漢拏山=1995메터)이 있을 뿐인데, 개마고대에는 장모봉(冠帽峰=2541메터), 남포태산(南胞胎山=2435메터), 북수백산(北水白山=2522메터), 백산(白山=2522메터), 소백산(小白山=2184메터), 낭림산(狼林山=2014메터)와갈봉(2262메터) 등, 거대한 높은 산이 수두룩히 있다.

그러면 개마고대와 백두산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지질학자(地質學者)들의 조사 연구한 결과를 들건데,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백만년 가까운 옛날 옛적, 이 땅덩어리, 즉 지구 위에는 큰 변화가 생기어, 땅이 두들어져 오르면서 산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 바다는 깊어지게 되던 때가 있었다. 이것을 제삼기(第三紀)라고 하는데, 이 때에 지금 우리가 사는 조선과 만주에는 남북으로 땅 위에 틈사리가 생기며 두들어져 오르는 동안에, 북조선에는 개마고대의 밀바닥이 생기고, 그 위에 그중 높이 두들어져 올라서 터져나온 곳이, 곧 백두산화산이었던 것이다. 화산이 터지는 처음에는, 알카리 조면암(粗面岩)이란 바위들이 생겨나와, 백두산의 원형(原形)이 되었고, 그 후에 다시 현무암(玄武岩)이 흘러나와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넓은 지역이 불바다를 이루게 된 것인데, 이때문에 개마고대는 현무암의 용암대지(熔岩台地)가 되었고, 그 위에 백두산이 동굴납작한 떡작 같이 올라 앉게된 것이다. 이것이 약 오십만년 전 제사기(第四紀)라고 한다. 그러고 산마루에 화산이 터져나오면서, 산봉우리가 무너져 내려앉은 곳에 물이 고이어

천지 (天池) 가 되었고, 그 후에 다시 두고두고 위로부터 천지의 물이 스며들면, 땅 밑으로는 끓는 주전자가 수증기 (水蒸氣) 를 뿜어올리 듯이 더운 기운이 솟아오르면서, 땅 속에서 알카리 유문암(流紋岩)이 흑흑 불어나와, 산 위를 덮어버렸다. 이것을 부석 (浮石) 이라고 하는 것인데, 보기에는 강 가의 자갈 같고도 구멍이 송송 뚫리고, 물에도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부석, 또는 뜨는 돌이라 하는 것이다. 대체로 흰 빛깔인 부석이 온산을 뒤덮었기 때문에, 산마루는 언제나 눈이 내린듯이 희게 보인다고 해서, 이름도 백두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배워두어야 할 것은, 백두산에서 현무암이 흘러내리고, 개마고대를 평탄한 들판 같이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흘러내린 것은 백두산이 주장이었을 것이나, 또 그와 같은 때에 그 일대의 다른 화산도 같이 터져나왔을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무암이 흘러내린 지역은, 백두산에서 북으로는 멀리 약 500 키로나 되는 만주의 밀산(密山) 이란 곳에까지 미쳤고, 서북으로는 압록강(鴨綠江) 하류 관전(寬甸) 에까지 미쳤고, 남쪽으로는 함경남도와 평안남북도의 접경일대에 미쳤다. 그 중에서도 백두산을 중심으로한 함경남북도와 평안북도에 걸쳐있는 지대를 개마고대라고 하는데, 그 면적이 실로 사만평방키로 (平方粁) 에 이르는 광범한 지역인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더 배워둘 것은, 화산 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 백두산 같이 용암이 흘러서 평탄한 대지를 이룬 것을 아스피레(Aspite) 식화산이라 하고, 화산이 터져나온 분화구 (噴火口) 중에도, 산봉우리가 무너내려앉은 것을 함몰 (陷沒) 칼데라 (Caldera) 라고 한다.

B. 백두산이 생기던 그 시대

백두산이 한참 터지나오며 화산활동이 맹렬하던 그 때를 지질학에서 제사기(第四紀)라 하고, 지금으로부터 오십만년 가량 이전이라고 한다면, 그 때는 과연 어떤 때이었을까? 우리가 말하는 역사라는 것은 불과 오천년밖에 못된다. 즉 역사라고 하면, 우리 사람이 개화 (開化) 해서 어떻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어떤 표적으로써 남기기 시작한 그 때로부터 말하는 것인데, 사람이 가장 먼저 발달했다는 중국이며 인도의 역사가 사오천년이라 하고,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역사가 또한 오천년으로 치고 있는 것에 비긴다면, 오십만년 전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이었는가 생각하기 어렵다. 이것은 사람의 역사 시대가 아니고, 지구의 자연사 (自然史) 의 한토막이 되는 것인데, 요컨 오십만년 가량 이전의 이 시대를 생각할 수 있는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이십여년 전, 중국 북경(北京) 근처 땅 속에서 파낸 화석(化石)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일찍이 중국정부의 초빙을 받아서 중국의 지질을 조사하게 되었던 스웨덴 (瑞典) 의 지질학자 안더선박사가, 땅 속 지층(地層) 에 묻혀있는 화석에서 수십만년 전, 혹은 백만년전의 동물과 식물을 연구하고 있던 중, (이것을 고생물학 (古生物學) 이라고 한다) 1921년 북경에서 서남쪽으로 약 사십마일 (哩) 가량되는 주구점(周口店) 이란 곳에서, 동물의 뼈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부근을 조사하게 되었었는데, 그 때 그 지방에서 나지 않는 석영 (石英) 이라는 돌조각을 여덟 주은 것을 위시하여, 땅 속에서 이미 돌이 된 두 개의 잇발 (齒) 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 때 발견한 돌조각은 먼 옛날 역사시대 이전의 사람이, 칼이나 도끼 같이 사용한 구석기(舊石器) 인 것이 분명하였고, 잇발도 미상불 고대의 사람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깊었다. 그 후 사오년을 두고 연구한 결과, 사람의 잇발인 것이 증명되어, 세계의 학자들이 이에 크게 주목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지방의 발굴사업 (發掘事業) 이 아메리카와 중국 학자들간에 계속하여 진행되었는데, 1929년에 이르러서 중국학자 대 문중(裵文中) 씨 손으로 현대가 완전한 사람의 두개골 (頭蓋骨) 을 파냈다. 여것이 유명한 신안로포푸스 • 페커넨쓰(Sinanthropus Pekinensis)라는 학명(學名)으로 알려진 구석기시대의 북경원인(北京原人)이라는 것이다. 이와 거의 같은 시대에 사람이 살

았다는 증거로 지금까지 발견된 사람의 두개골 등의 화석으로 알려진 것이, 자바의 피테칸트로푸쓰·에렉트쓰와, 구라파의 헤일델베륵사람, 네안데르타아르사람 등이 있다. 그래서 인류가 이 지구 위에 나타나 살기 시작한 자취를 알아내게된 것이, 이런 것에서부터 비롯하고 있는 것인데, 북경원인이란 것을 다시 자세히 연구한 결과가, 지질학상으로 제사기인 약 오십만년 전 사람이였다고 증명되었고, 또 그 때의 발굴 결과로, 그 때 사람은 벌써 불(火)을 일으킬줄을 알아서, 짐승을 잡아 구어먹으면서 땅 속에 굴을 파고 살았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흔적을 발견한 가장 오랜 것 중의 하나로, 이것이 특히 동양, 중국, 만주, 조선 방면에서 사람이 살았다는 첫발견인데, 바로 백두산이 맹렬히 불을 뿜으며 조선과 만주 접경의 광대한 지역이 불바다가 되었을 약 오십만년 전의 제사기라는 그 시대가, 말하자면 북경원인이 북경지방에 살기 시작한 그 때쯤이었을 것이니, 만주에도 사람이 살았다면, 백두산의 역사는, 극동(極東)지방에서 사람의 시초의 발달과 때를 같이 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또 한가지 흥미를 느끼는 연구가 있다. 백두산이 화산으로 터지던 시대를 생각해 본다는 것도 허무한 듯 한데, 백두산이 터지기 이전, 혹은 그 초기(初期)의 백두산 근방 지형(地形)을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더 허무한 듯도 하다. 그러나 오늘의 학문이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발달했다는 그것만을 알아두는 것도, 결코 우리 공부의 헛된 일은 아닐 것이다.

오늘의 학문 중, 생물지리(生物地理)의 분야(分野)에서 보면, 현재 압록강상류의 지류(支流)가 되어있는 함경남도의 허천강(虛川江)은, 원래 압록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고, 강물은 만주 땅으로 흘러서 송화강(松花江)의 원류(源流)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다. 즉 소련의 동물학자로, 강생선 즉 담수어(淡水魚)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베로그라는 학자에게서 착안(着眼)되어가지고, 일본사람 학자로, 전에 경성대학 교수(대학교 선생님을 교수라함)로 있던 모리 박사(森爲三)가, 십오개년 간 조사 연구한 보고논문에 의하면, 휴츄·타이멘(강멍태=망태와 같은데, 강에서 나는 것)과 트라·로타(메기 비슷한 것)라는 강생선이, 만주에서는 송화강과 흑룡강(黑龍江)에서 그 이북으로 시베리아와 연해주(沿海州)등 북방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송화강 상류로 백두산 가까운 장백현(長白縣)에까지 와서 없어지고다, 시 장백산맥(長白山脈)을 넘고 압록강을 건너 뛰어서, 허천강 상류에 와서야 찾아볼 수 있다는 이상한 지리적 분포(分布)를 보이고 있다. 이것으로써 미루어 생각한다면, 백두산의 화산활동이 있기 전부터, 허천강은 지금의 개마고대 방면에서 북으로 흘러, 송화강에 통하던 것이, 그 후의 백두산화산이 터지면서 그 일대의 지형에 변화가 생기어, 장백산맥이 생기면서 허천강 물기는 끊기우고, 압록강이 지금과 같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백두산의 화산활동 이전은, 만주와 조선이 그대로 땅이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데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정도의 담수어 분포상태(分布狀態) 연구로써, 그와 같은 중대한 결론을 곧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나, 하여튼 이 연구는, 생물지리의 분야에서 극히 흥미를 끄는 연구인 것이라는 틀림없다. 이에 대하여 만일 지질학자의 지질학적 연구가 부합한다면 더욱 흥미있는 일일 것이다. (계속)

4. 늙은 뒤의 학문

진(晋)나라 평공이란 분이 그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사광에게 물었읍니다. 그런데 이 사광

은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읍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일흔이 되었는데 이제부터 글을 배우고자 하오. 그러나 너무 늦어서 배워질지 모르오."

하였읍니다. 사광이 대답하였읍니다.

"뭐 등잔을 키는 정도이지요."

평공은, 이 말을 듣고는 놀리는 것으로 알고,

"뭣이 어쨌다구? 그대는 신하로서 임금을 놀릴 셈인가?"

하고 대단히 노했읍니다.

사광은 천천히 말했읍니다.

"앞 못보는 신이 어찌 상감을 놀리겠읍니까? 신이 들자온데, 어렸을 때 학문하는 것은 아침 햇빛과 같사오며, 어른이 되어 학문하는 것은 낮의 햇빛과 같사오며, 늙어서 학문하는 것은 등잔불과 같다 하옵니다. 등잔불일찌라도, 학문 없이 깜깜한 것보다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아옵니다."

평공이 이 말을 듣고,

"좋은 말이로다."

하였읍니다.

5. 부엉이의 여사

숲 속에서 부엉이와 비둘기가 만났읍니다.

"부엉이, 자네 어디 가나?"

"나는 장차 동쪽으로 이사를 가려는 판일세."

"건 왜?"

"온 어찌 이 나라 사람들이 내 우는 소리를 싫어하는지, 하도 성가셔서 아주 딴 나라로 이사하려네."

이 말을 듣고, 비둘기가 말했읍니다.

"오 그래? 그렇다면 자네는 그 듣기 싫은 소리를 그쳐야 하네. 그것을 고치지 않고

동쪽으로 이사를 갔댔자, 또 그곳 사람들이 싫어할테니까 말일세."

6. 떨어뜨린 표

조나라 사람 하나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넜읍니다. 그 때 어쩌 잘못하여 가지고 있던 칼을

강 속에 떠뜨리고 말았읍니다. 그 사람은,

"내 칼이 여기 떨어졌다."

하면서 하겁지겁 뱃전에다 표를 해 두었던 것입니다.

얼마 있다가 배가 섰읍니다. 그 사람은 뱃전에 표 지른 데서부터 물로 풍덩 들어가 칼을 찾았읍니다.

그러나 칼은 처음 떨어뜨린 데 있을 것입니다. 배는 거기서 꽤 간 셈인데, 과연 그 칼을 찾았을까요?

그림 • 김 거 창

☆작 품 모 집☆

여러분 소학생의 작품을 모집합니다. 작문, 동요, 그림, 습자 등 무엇이고 좋습니다. (편집실)

★내동생

1학년에 새로 입학한 내동생 영길이는, 학교에 다닌지 일주일이 된 토요일날 저녁밥을 먹으며,

동생… 인제 월요일날부터 매일 시간표가 없으니 어떻게 해 응? 나……??

옆에서 듣고 계시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허리를 못퍼시고 웃으셨읍니다. (서울 돈암교 4의 1 주 명훈)

★고 향

아기…어머니 고향이 뭐유?

어머니…제가 낳은 곳이란다.

아기…그럼 나는 병원이 고향이게?

어머니…왜?

아기… 병원에서 낳았으니까요.

어머니…?

(서울 금화교 6의 1 문정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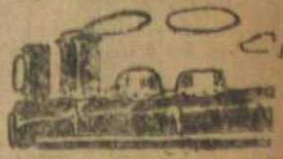
★주름살

어떤날 할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읍니다. 손자가 냉수를 입에 가득 물고 와서, 할아버지 얼굴에다 뿜었읍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잠을 깨어서 손자를 꾸짖었읍니다.

손자…할아버지가 문바르실 때, 물을 뿜으면 주름살이 퍼진다고 말씀하시기에, 할아버지 얼굴에 주름살이 펴지라고 물을 뿜었읍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할아버지는 할 말이 없어서 무말로 웃기셨읍니다. (서울 배동교 2의3 정 철)

★담 배

수돌이…기차에서는 담배를 피우는데, 전차에서는 왜 못피는지 아



니?

차돌이…그럼 그까짓걸 모를라구.

수돌이…어디 말해봐.

차돌이……기차에는 연기나는 굴뚝이 있지않아? 그렇지만 전차에는 굴뚝이 없으니까 그렇지 뭐…(서울 종로 5가 25의 2 고기덕)

★귀

돌돌이……복순아 사람한테 왜 귀가 있는지 알아?

복순이……그것은 어머니 소리나, 또는 말을 들으라구 있지.

돌돌이……하하! 너 바보야, 귀는 말야, 눈나쁜 사람 안경쓰라구 있는거야. (경기 연백교 5년 박 종흠)

★ 1+3=6

언니……애 하나에다 셋을 보태면 얼마냐?

아우…?

언니…잘 들어봐. 연필로 생각해 봐라. 연필을 한자루 사고, 또 세 자루를 사면 모두 몇 자루지?

아우…응…여섯자루야.

언니…여섯? 어째서?

아우…내가 먼저 사둔 연필이 두자루 있거면요.

언니…뭐? (서울 경기중학교 1년 염 창섭)

몸을 튼튼히 하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줄넘기

박 은 섭

줄넘기 운동은 줄만 가지면 누구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뛰고자 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줄넘기 운동이야말로 제일 재미있고 적당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줄넘기 운동이 다른 운동과 다른 점은 온몸을 골고루 적당하게 움직여서 발달시키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뛰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방법에 따라 리듬에 맞춰서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류는 대략 스물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기 좋은 것으로 우선 열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읍니다. 다음 그림과 같을 잘 보시고 한 번 해 보십시오.

(사진은 박 은섭 선생)

다음 호에도 여러가지가 있읍니다.

①줄의 길이

소학생=줄의 가운데를 두 발로 딛고, 손잡이를 편 주먹이 어깨의 높이와 같도록 맞춤.

중학생=줄의 가운데를 두 발로 딛고, 손잡이를 편 주먹이 허리의 높이와 같도록 맞춤.

②앞으로 뛰는 법과 뒤로 뛰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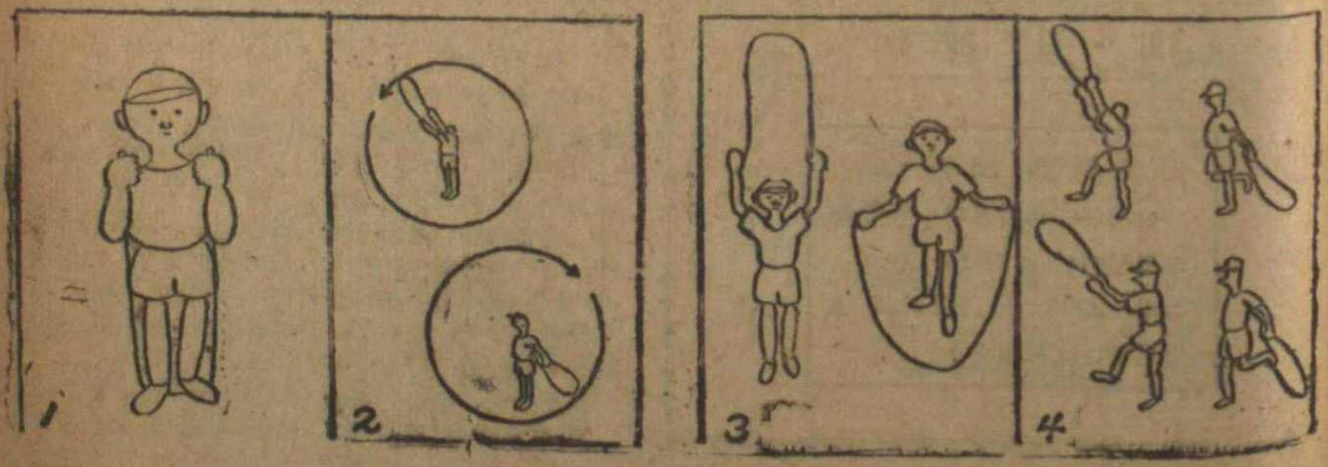
(줄 두르는 법 연습) 뛰지 않고 먼저 줄을 앞으로 두르기와 뒤로 두르기를 연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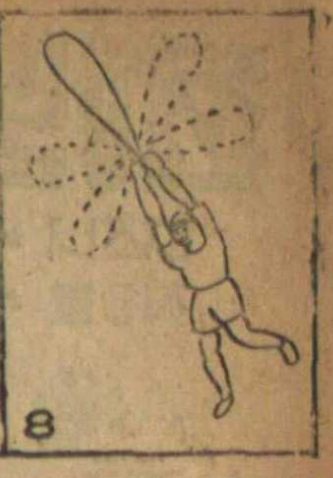
③두발 뛰기 하는 법.

줄뛰기의 기본이 되는 것임으로 잘이 연습할 것. 발끝으로 뛰며, 뛰었을 때 다리가 쭉 펴지도록 힘쓸 것.

④기본 운동.

왼발을 뒤로 들어 줄을 두르고, 그당 그 발을 앞으로 펴서 한 번 두르고, 오른발을 또한 이와 같이 하여 한번 돌며 뛰는 법,





⑤두 팔을 서로 바꾸듯이 하여 뛰는 법.

둘을 마을 것 굽히어서, 서로 어긋나게 될 것.

⑥팔을 어긋나게 쥔 채로 줄을 돌려서 뛰는 법.

처음에는 상당히 힘이 드나, 차차 계속하여 하면 재미나게 됩니다.

⑦앞으로 뛰기와 뒤로 뛰기를 연속하여 뛰는 법.

그림과 같이 앞으로 뛰기부터 줄을 왼편이나 오른편으로 공두르며, 한쪽 발로 뛰면서 뒤로 돌아서서 뒤로 뛰기를 시작하는 것.

⑧한쪽 팔로 두르며 번갈아 뛰는 법.

줄을 오른손으로부터 왼손으로 바꾸어 쥐며, 발뛰기도 오른발부터 왼발로 바꾸어서, 번갈아 바꾸어 뛰는 것.

⑨한쪽 발로 편편히 두르면서 무릎을 굽히고 뛰는 법.

줄을 땅에 편편히 낮게, 어깨를 중심으로 두르면서 뛰는 것.

⑩두 발을 모았다 벌렸다 뛰는 법.

뛰었을 때에는 두 발을 모으고, 땅에 댈 때에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벌리며, 이것은 1, 2, 3, 4, 5, 6, 7, 8, 의 구령에 맞추어 뛰는 것.

⑪몸을 옆으로 숙이고 뛰는 법.

몸의 윗두리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깊게 굽히고 한쪽발로 뛰는것. 앞으로 나가는 줄뛰기 가운데, 구비를 돌 때 많이 뛰는 법.

⑫옆으로 두 발을 맞추어서 뛰는 법.

시계의 추와 같이 오른쪽 왼쪽, 옆으로 두 발을 맞추어 뛰는 법.

피노키오

디즈니 * 그림
작은들 * 옮김

지금까지의 대강 이야기

착한 제페토할아버지가 나무토막으로 만들은 인형 피노키오는, 푸른 선녀의 덕으로 목숨을 얻어 가졌읍니다. 보통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었읍니다. 피노키오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정말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노키오는 못된 여우와 도둑괭이의 꼬임에 빠져서, 귀뚜라미 찌미니의 말라는 말도 듣지 않고, 극장에 팔려도 가고, 또 무서운 섬에 팔려 가서 하마터면 나귀가 될번 하다가 간신히 도망해 왔읍니다. 그러나 집에 와 보니 제페토는 피노키오를 찾으러 갔다가 고래한테 삼키우고 말았읍니다.

9 제페토를 찾아서

피노키오와 찌미니는 제페토를 찾으러 길을 떠났읍니다.

마침내 큰 바닷가에 다달아서 물 속을 들여다 보았읍니다.

"피노키오야, 고래를 찾아내기가 어렵겠다."
찌미니가 말하였읍니다.

"그래도 찾아내야지 무슨 소리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것을 해서라도 아버지를 구해내야지. 난 물 속에 들어가서 기어이 몬스트로란 놈을 찾아서 아버지를 구해낼테야."

"그렇지만 너마저 살아오지 못할거다. 그렇게만 하는 날이면 너마저 살아 오기 어려워."

"어쨌든 가야 해. 가서 아버지를 살려내야 해!"
피노키오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찌미니를 돌아보고 시름없이 빙그레 웃었읍니다.

"그런데 찌미니야, 넌 나를 따라 와선 안돼."

"무슨 소리야 따라 가야지. 네가 가면 나두 가는 거야."
찌미니는 점잖게 말했읍니다.

그리하여 피노키오는 큰 물을 하나 골라 들고는 이것을 끄리치다 때었읍니다. 그리고는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갔읍니다. 돌이 피노키오를 아래로 잡아다렸읍니다. 아래로 아래로, 자꾸 내려갔읍니다. 찌미니도 물론 따라 갔읍니다.

그들은 바다 깊숙히 들어가 밑창까지 닿았읍니다.

"자, 우리는 바다 밑창에 왔다. 몬스트로란 놈을 찾아 낼 수 있을까 알아보자."

그리하여 피노키오와 찌미니는 바다 밑을 걸었읍니다. 이윽고 그들은 커다란 물고기, 물을 많이 만났읍니다.

"여보게들, 혹 몬스트로를 보지 못했나?"
피노키오가 물었읍니다.

"자고 있다네. 몬스트로는 잠자는 중야."
큰 물고기들은 다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자다니, 자는 데가 어디람!"
하고 피노키오가 물었읍니다. 그러나 큰 물고기 가운데 그것을 아는 것은 하나도 없었읍니다.

그들은 다시 걷고 걸어서, 이번에는 작은 물고기들을 많이 만났읍니다.

"여보게들, 몬스트로가 어디 있는지 알겠나?"
하고 피노키오가 물었읍니다.

"자고 있다네. 몬스트로는 잠자는 중야."

고 작은 물고기들이 대답하였읍니다.

"자다니, 자는 데가 어디람!"

고 피노치오가 물었읍니다. 그러나 작은 물고기들은 아무도 몰랐읍니다.

그리하여 피노치오와 찌미뇌는 또다시 바다 밑을 자꾸자꾸 걸었읍니다.

"아아, 찌미뇌야, 언제나 우리는 그 고래를 만난단 말이냐?"

하고 피노치오는 한숨하였읍니다.

"낸들 아나. 그렇지만 찾을 때까지 찾아 봐야지."

찌미뇌가 힘없는 소리로 말했읍니다.

얼마 안가서 그들은 또다시 더 많은 큰 물고기와, 더 많은 작은 물고기들을 만났읍니다. 피노치오는 만나는족족 물어 보군 하였읍니다. 그러나 물고기들은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저 헤엄만 치고 있을 뿐이었읍니다.

피노치오와 찌미뇌는 그들을 따라갔읍니다.

둘이서는 바다 밑을 자꾸 자꾸 걷고 걸어갔읍니다. 헤엄쳐 가는 물고기떼를 따라서 자꾸만 갔읍니다.

별안간에 피노치오가 우뚝 섰읍니다.

"저것좀 봐라 찌미뇌야. 저 시커먼게 뭐냐? 저 시커먼 짐승이 뵈지 않니?"

하고 외쳤읍니다.

"응 뵈구말구. 틀림없는 고래다."

찌미뇌가 대답하였읍니다.

피노치오는 소리쳤읍니다.

"우리는 몬스트로를 찾아냈다. 아버지를 삼킨 저 큰 고래를 기어이 찾아냈구나."

큰 물고기들과 작은 물고기들은 몬스트로의 결을 헤엄쳐 갔읍니다. 피노치오와 찌미뇌는 그 뒤를 따랐읍니다. 그들은 고래 눈을 쳐다보았읍니다. 고래의 눈은 감겨져 있었읍니다. 과연 몬스트로는 잠이 들어 있었읍니다.

"어유, 참 굉장히 크구나."

피노치오는 가만히 말했읍니다.

"참 굉장하군."

찌미뇌도 속삭였읍니다.

'그런데 찌미뇌야, 만일에 몬스트로가 그대로 잠을 잔다면, 입은 늘 다물기만 할게다. 입을 다물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겠니? 그러면 제페로를 구해낼 수가 없지 않겠니? 이 노릇을 어떡하면 좋단 말이냐!"

"참 걱정이로군. 그래 몬스트로가 저지경으로 입을 꽉 다물고만 있으면 어쩌자는 것인가!"

찌미뇌도 여간 걱정이 아니었읍니다.

피노치오는 가만히 서서 생각해 보았읍니다.

찌미뇌도 가만히 서서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들은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았읍니다. 이럴 즈음에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들은 몬스트로 곁에서 마음 놓고 헤엄쳐 다녔읍니다. 나중에는 몬스트로에게 바짝 닥아서서 사뭇

까물며 놀았읍니다. 그러다가 몬스트로의 눈은 건드리었읍니다. 그렇지만 겁낼 것은 없었어요. 몬스트로는 잠이 깊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큰 일을 저질렀읍니다. 물고기들이 그만 몬스트로의 코와 입을 한꺼번에 건드린 것입니다.

이 순간, 갑자기 몬스트로의 눈이 뻐꿈하고 떠지더니 뒤이어 그 굉장한 입이 으악 하면서 열렸읍니다.

자아, 야단났읍니다. 물고기들은 도망질을 쳤읍니다. 아니, 도망질을 치려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읍니다. 너무 몬스트로에 가까이하였던 것입니다. 고래의 입이 한없이 크게 열리자마자 크고 작은 것 할것없이 물고기들은 모조리 그 입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읍니다.

피노지오와 찌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벌써 짐작이 드실 것입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피노치오와 찌미니는 물고기와 함께 고래 입으로 들어갔읍니다. 그들은 드디어 몬스트로의 뱃속에 들어앉게 된 것입니다.

10 제페토를 만나서

고래가 그냥 잠만 자고 있는 동안, 제페토는 고래 뱃속에서 그대로 앉아 있었읍니다. 고양이 퓌가로와 금붕어 클레오도 함께 있었지요.

제페토가 어디 앉아 있었는가 하면, 바로 고래가 통째 삼킨 부서진 배 위에 앉아 있었읍니다.

그 배 가장자리에는, 몬스트로가 배를 삼켰을 때 한꺼번에 들이킨 물도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고래 뱃속이긴 하지마는, 흡사히 무슨 연못에 배를 띄우고 있는 셈입니다.

제페토는 뱃전에 앉아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읍니다. 날마다 온 종일 낚시질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읍니다. 잡힐 고기가 없었읍니다. 아주 아무것도 없었읍니다.

제페토는 몹시 배가 고팠읍니다. 물론 고양이 퓌가로도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무슨 먹을 것이 좀 있었으면, 이거 배고파 살 수 있나!"

제페토는 저절로 탄식이 나왔읍니다. 퓌가로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제페토는 연방 물 속을 들여다 보았읍니다. 퓌가로도 기운 없이 물 속만 들여다 보았읍니다.

"없구나. 고기는 한 마리도 없구나. 고래가 잠든 바람에 입이 꽉 닫혔으니, 고기가 물이 울려도 들어올 수가 있어야지. 몬스트로란 놈이 잠을 오래잘수록 우리는 꼼짝 굶어야 하다니. 이러구서 대체 우리가 얼마 동안을 견디어낸단 말인가."

여전히 제페토는 시장했읍니다. 퓌가로도 시장했읍니다. 다시 그들은 물 속을 들여다 보았읍니다.

"퓌가로야, 너무 오래 허기가 졌구나. 아무것도 먹을거라곤 없구나. 아무것도!"

제페토는 몬스트로의 아가리쪽을 쳐다보았읍니다. 여전히 꽉 닫혀 있었읍니다.

제페토는 긴 한숨을 쉬었읍니다. 퓌가로가 긴 한숨을 쉬었읍니다.

"그러나 먹을 것만 생각할 수도 없다. 퓌가로야 난 내 아들 일이 걱정이다. 그 철없는 피노치오. 아아 내 아들, 귀여운 내 아들아!"

또다시 나오느니 한숨 뿐입니다.

"그 기쁨의 섬인가에서 피노치오를 구해내야 할텐데. 어떻게 구해 낸단 말이냐."

제페토는 엉엉 울고 싶었읍니다.

이 때였읍니다. 갑자기 고래 뱃속이 흔들리기 시작했읍니다. 몬스트로가 움직인 것임은 말할 것도 없지요. 고래는 마침내 바닷속을 슬슬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점점 빨리 빨리 달리기 시작하였읍니다. 드디어 그 큰 아가리가 버쩍 열리었읍니다.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큰 물고기떼가 들어옵니다. 작은 물고기떼가 들어옵니다.

피노치오가 들어왔읍니다. 커푸타미 찌미니가 들어왔읍니다.

피노치오는 부숴진 배 위에 거어 울었읍니다. 찌미니도 그 뒤를 따랐읍니다.

"아버지, 아버지!"

피노치오가 소리쳤읍니다.

"피노치오야! 오오, 너로구나. 피노치오야. 네가 있구나! 피노치오, 내 아들, 오오 내 아들아! 네가 여기들!"

그들은 아무것도 다 잊고 크게 웃었읍니다. 웃고 울고 웃고 하였읍니다.

"어서 어서 도망가야 되요."

피노치오가 말했읍니다.

처음에 제페토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피노치오의 눈을, 피노치오의 코를, 피노치오의 귀를, 얼따진 사람처럼 바라보았읍니다.

"피노치오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란 말이냐."

제페토는 피노치오의 꽁무니를 보았읍니다. 꽁무니에 달린 꼬리를 보았읍니다.

"피노치오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란 말이냐!"

그러나 이 말을 피노치오는 들을 겨를이 없었읍니다. 그는 고래 아가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입니다. 피노치오는 끔찍한 것을 보았읍니다. 그것은 몬스트로의 아가리가 좌 닫히며 그놈이 다시 또 잠이 들어버린 것이었읍니다.

"나좀 보세요 아버지.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놈과 싸워야겠읍니다. 이놈이 곧 아가리를 열지 않는다면 영영 우리는 여기서 빠져 나가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계속)

고래 뱃속의 제페토를 구하러 들어간 피노치오와 찌미니 역시, 고래 뱃속에 들어간 몸이 되었읍니다. 어떻게 그들이 살아 나올 수 있는지? 이 피노치오는 다음달치로 줄이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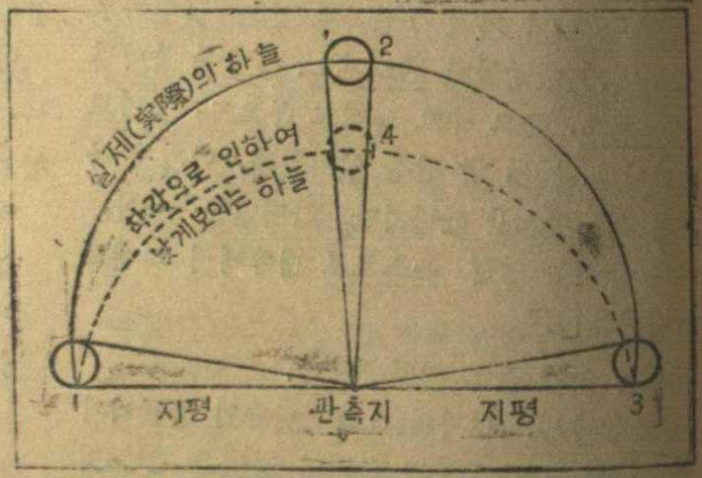
과학질문

(문) 과학계 선생님과 편집부 어러기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치 과학질문은 참으로 자세하여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느껴는 것인데, 왜 지평선(地平線)에 가까이 있을 때, 태양이나 달은 크게 보이는 것일까요? 바쁘시지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강원도 강릉 윤 성규)

(답)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동쪽 지평선에서 마악 뜬 태양이나 달은, 지금 윤군이 질문한 것과 같이 대야만한 크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머오로면서 작아져, 하늘 복판에 이르러서는 아주 조그만 대접만하게 보입니다. 또한 이것은 서쪽으로 질 때도 크게 보이는 것인데, 그 이유는 다만 눈의 착각(錯覺…"소학생" 5월치 51페이지에 있음)으로 인해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태양이나 달 그 자체는 어디있든지 똑같은 크기를 가진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태양을 아주 진한 색유리를 통해서 본다든지, 달을 카아드나 무슨 통(筒) 같은 것으로 멍 위의 물표(物標)를 가리고, 태양이나 달만이 보이도록 하든지, 또는 동전이나 콩을 손가락 사이에 끼운 다음, 손을 쳐들고 크기를 재어보십시오. 태양과 달은 어디 있든간에 같은 크길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눈에 착각이 일어나나? 그것은 모오든 물체(物體)는 넓은 곳에 있으면 실제보다작게 보이고, 그 반대로 좁은 곳에선 크게 보입니다. 같은 크기의 동그라미나 길이의 선(線) 일지라도, 주위 환경이나 모양이 바뀌며는 아주 틀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나 달이 지평선 가까이 있을 때는 산이나 높은 곳 같은, 멍 위에서 그 크기를 잘알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는고로, 일층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며, 넓은 하늘에 있을 때엔 실제보다 눈의 착각으로 낮게 그리고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과학계)

☆ ☆ ☆



우리들이 쳐다보고 있는 하늘은 1, 2, 3 이라야 될 것이, 눈의 착각으로 1·4·3으로 보인다, 고로 복판에 있는 태양과 달은 지평선에 있을 때보다 작게 보이는 것이다.

애독자 아현 상타기

☆ 문 제 ☆

① 무선전신은 어느나라 사람이 몇살 때 발명하였으며, 이름은 무엇 입니까?

② 사람은 제일 먼저 무엇을 돌으로 썼읍니까?

③ 다음 말은 어느 소설에 나오는 것이며 누가 말한 것입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래도 한 번은 또 그런 문제가 일어 날텐데…글쎄 내 생각에두…말이나…"

위의 세 문제는 다 "소학생" 6월치에 있는 것이니, 잘 읽어보시고 대답을 쓰십시오. 바로 맞게 써보내신 분에게는 다음과 같은 상을 드리겠읍니다.

1등·10명=="그림애기책"과 "동화책" 합권씩

2등·40명=="동화책" 한권씩

마감·6월 20일

발표·소학생 9월치

보내실 곳·서울 鍾路 2街 永保빌딩 兒童"소학생" 編輯部

주의할 것·보내시는 분의 학교, 학년, 이름을 똑똑히 쓰고, 봉투 겉에는 "현상"이라고 쓰십시오.

이달은 먼 나라 수수께끼 동요부터 보아드리겠읍니다.

초록, 조그만 집이 있고,
초록, 조그만 그 집 안에는
고동색 조그만 집이 있고,
고동색 조그만 그 집 안에는
노랑이 조그만 집이 있고,
노랑이 조그만 그 집 안에는
하얀 조그만 집이 있고,
하얀 조그만 그 집 안에는
조그마한 마음이 불어 있대요.

(영국 수수께끼)

무엇인지 아시겠읍니까?.

밤(栗)입니다. 가시가 숭굴숭굴 돋친 초록 껍질을 벗기고 나면, 알밤(날밤이라고도 하지요)이 쏙 나옵니다. 알밤은 고동색 껍질을 가졌지요. 그 알밤 껍질을 벗기고 나면, 다시 노란 속껍질, 속껍질을 까고 나면 그제야 하얀 밤, 그 하얀 밤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마음이란 또 무엇일까요?

싹이지요. 연하고 예쁜 싹입니다.

그런 싹을 왜 마음이라 했을까요?

그것이 제일 나는 대목입니다.

싹은, 이내 자라나서 다시 밤나무가 되는, 가득한 뜻을 가만히 품고 있지요. 가득한 뜻을 품은 것—마음이지.

하나만 더.

우유처럼 하얀 대리석 벽 안에
부드러운 비단 안을 발고,
수정처럼 맑안 샘 가운덴
황금 능금 동동 한개 떠있다.
이 성안에는 문이 없는데
그런데 도둑이 황금 능금을
도둑질하여 간다.

(영국 수수께끼)

달걀이에요.

달걀의 노란자위를 황금 능금이라 했읍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마음이 아릿아릿 해지는 황홀한 생각입니까. 참으로, 달걀을 집어서 햇볕에 불고보면, 노란자위는 그냥 불붙는 꽃심지처럼 아름답습니다.

윤석중 선생님의 수수께끼 동요가 재미나는 것이 많습니다.

한 애가 눈 위로
뛰어 갔는데,
양쪽 발자국이
다 나지 않고
한쪽만 났으니
웬일인가요.

왜 그럴까? 윤석중 선생이 이에 대답을 달아 두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한발을 처들고
껑충껑충,
앙감질로 갔으니까
그렇지요.)

아주 쉽지요. 앙감질로 갔으니 으레히 발자국이 한쪽만 났을테지요. 윤 선생이 여러분을 한차례 놀려먹은 셈입니다.

팔은 있지만
받지를 못하고,

다리는 있지만,
걷지를 못하고,

지팡이는 있지만
짚고 다니지를 못하고—

그게 머까.

다리는 있지마는 걷지를 못하고, 지팡이를 가졌지마는 짚고 다니지를 못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게.

◇ ◇

어느게 더 무거울까? 바위하고 서름하고.
어느게 더 짧을까? 오늘하고 내일하고.

어느게 더 쉽게 갈까? 봄눈하고 청춘하고.
어느게 더 길을까? 바다하

고 정리하고.

(무엇. 트젯티)

여러분도 교우 같은 물음을 마음에 가져 봅시다.

어느게 더 무거울까? 무엇하고 무엇하고. 무엇에다 자기 생각에 맞는 이름을 찾아내면 됩니다.

어느게 더 무거운가?
어느게 더 가벼운가?
어느게 더 고운가?
어느게 더 예쁜가?

얼마든지 묻고 대답할 수 있읍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묻고 대답함으로, 자기의 뜻을 가추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달새야 높은데 나는 중달새야,
너는 그래 싫지 않니?
저 아득한 하늘에 다달을 때면,
구름이 무서워 뵈지 않니?
어떤 때는 너도 저 바다 속에 말없는 금붕어가 되고 싶지 않니?

금붕어야 깊은데 숨은 금붕어야,
너는 서러운 일이 아주 없니?
진물결이 네 몸에 와 닿을 때면 네 마음은 참으로 즐거우냐?
어떤 때는 너도 저 높이 나는 중달새가 되어 노래하고 싶지 않니?

(중달새와 금붕어.
살마·타베마)

푸른 하늘 높이 떠서, 노래만 하는 중달새, 그 중달새도 간혹 물 속에서 헤엄만 치는 금붕어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 풀잎 그늘에서 말없이 조용히 쉬고 싶을테지요.

또 금붕어도… 간혹은 하늘 높이 떠올라 지저귀고도 싶을테지요.

이런 동정하는 마음이란 곧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코끼리야 코끼리야 참으로 살아있는 코끼리야, 어째 너는 고개만 쉴름 없이 흔들고 있느냐?

——그건 별게 아니라, 다른 일이 아니라, 언제나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오……

—저리 조그마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쥐와 같이, 이 창살 속에 가뒀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야…

—아아 하루 온종일 참말 싫증나는 일이다. 차라리 큰 나무 등이라도 끊게 해 주었으면 좋을 것을…

"코끼리야 코끼리야 그렇게 고개만 흔들지 말고, 얼른 그 긴 코를 이리로 내밀어 보아라….

나는 비단으로 만든 코끼리를, 너를 주려 가져왔다.
이것은 조그만 코끼리지만 참 어여쁘잖니. 자아 갖고 싶으냐!

이 아기를 돌봐주고, 씻겨주고, 할아도 주고 하느라면, 너는 고개를 흔들지 않고도 지낼 것 아니냐?"

(코끼리·싸아샤·초오르누이)

동물원 창살 안에 코끼리가 갇혀 있읍니다. 그 둥둥한 몸집을 하고, 하는 일이 없으니 늘 고개만 흔들지요. 창살 앞에는 아기가 두 손으로 창살을 잡은 채 생각합니다.

"얼마나 심심하기에 고개만 흔들까?"

그래서 비로오드 비단으로 만든 조그만 노리개 코끼리를 가지다 넣어줍니다.

"이건 노리개지만 참말 아기냥 생각하고, 이 아기를 씻겨주고 할아주고 하느라고, 심심하지는 않을테지."

하고 생각하며.

코끼리는 그 둥둥한 몸보다는 아주 귀엽고 적은 눈을 떠서, 고맙다는 인사라도 했는지 모르지요. 초오르누이의 "아기들의 집" 이란 동요집에는, 재미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더.

푸른 전나무야 전나무야 넌 어디서 자라났니?
—넌 수풀 기슭, 조용한 골에서 자랐지.

푸른 전나무야 전나무야, 넌 어떻게 지내왔니?

—여름은 퍽덥게. 겨울 동안은 잠만 잤지.

푸른 전나무야 전나무야. 누가 널 비어놓았니?
—작은 빨갛 할아범이 비었지.

푸른 전나무야 전나무야. 그 할아범은 지금 당장 어디 계시니?
—지금 집에서 담배를 피어 물고 물끄럼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지.

푸른 전나무야 전나무야. 그 할아범은 왜 물끄럼이 창밖만 내다 볼까?
—혼자 사니 그렇지.

푸른 전나무야 전나무야. 그 할아범 집은 어디있니?
—동네만 동네마다, 구석이란 구석마다 다 있지.

푸른 전나무야 전나무야. 그 이름은 뭐라했지?
—난 몰라. 집에가서 할머니께 물어보면 알지.

(크리쓰마쓰의노래•존오르누이)

나무를 보고,
"푸른 전나무야"
이렇게 불러보는 그 부드러운 마음의 목소리가 귀에 창창하게 들리지요.

＝끝＝

☆옛날우라나라스포오쓰☆

여러분은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축구, 정구, 야구, 배구 이 밖에도 수 많은 여러 가지 운동이 있어,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치고 이러한 운동을 안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동은 대부분 서양서 들어온 것으로, 우리 나라 고유의 운동은 거의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축구가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 있었다고 말씀드리면 여러 동무들은 놀라실는지요?

옛날 우리 나라에도 여러 가지 운동과 유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축구(蹴球)라 하겠읍니다. 이것은 아주 오랜 옛날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시작된 듯 하나, 이것이 유행되어 많이 놀게 된 것은 고려 때였읍니다. 민간에서 국민운동으로 장려되었고, 또 궁중에서도 많이 하였다 하며, 궁중에는 크게 운동장을 닦아놓고 공치기를 하였다 합니다. 이 운동장의 이름을 구정(毬庭) 또는 구장(毬場)이라 불렀는데, 이 구정은 나라에 무슨 큰 일이 있으면 으레히 행사를 위하여 이용했다 합니다. 그러고 넓은 이 운동장은 훌륭한 설비가 되어 있었다 하니, 이것으로 보아 그 때 공치는 운동에 얼마나 힘썼던가를 알 수 있읍니다.

이 운동은 이조(李朝) 초년에도 많이 유행되었으니, 이조실록(李朝實錄)이란 책을 보면, 태조(太祖)와 정종(定宗)도 가끔 대궐 안에 있는 구정에서 공을 쳤었다고 씌어 있읍니다. 그 때에 공잘치는 선수로는 도흥(都興), 유운(柳雲) 두 사람이었는데, 특히 정종은 공치기를 퍽 즐기어, 이 두 선수를 매일 불러다 서로 공치기를 하며 날을 보낸 때도 있었다 합니다. 이것을 보고 문신(文臣)들이 임금이 공을 친다고 이것을 반대 하였으나, 정종은, "나는 무인(武人)임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병이 나기 쉽다" 하고 공을 쳤었다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옛날 우리나라가 글만 힘쓸 알고, 또는 이 글하는 사람만을 존경하였지, 운동을 하고 무술(武術)을 배우는 씩씩한 사람들은 업수이 여기고, 이러한 것을 장려하지 않아, 문약(文弱)에 흘렀다는 것을 엿볼 수 있읍니다.

축구 이외에는 구멍에 공을 던져넣는 포구(抛球=지금으로 말하면 농구(籠球)라고나 할는지요?)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포구에 따라서 하는 음악으로 포구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고려 때부터 지금까지 유명한 것입니다. 이밖에 축구(蹴球) 혹은 축국(蹴鞠)이라고 불리우는 운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신라 때에도 있었읍니다.

하여 박영종 선생님이 써주시면 "동요 맞보기"는 이것으로써 열 단 끝을 맺기로 되었읍니다. 동안 "소학생"독자를 위 요랄 얼마나 아름답고 보드럽고 재미있는 것입니까.

(편집부)

◇동 화◇

한줌의 흙

헨리이·반·다이크 저음

·그 림·한 홍 택

이 동화를 지으신 헨리이·반·다이크 선생님은 호오랜드계통의 아메리카 사람으로, 1852년에 이 세상에 낳아, 1933년에 돌아가셨읍니다. 목사로, 소설가로 또는 훌륭한 외교관으로 훌륭한 일을 남기시었으나, 이선생님은 그밖에도 푸린스톤 대학에서 오랫동안 영문학(英文學)을 가르치셨읍니다. 그런데 소설가로서의 선생님은, 많은 수필(隨筆)과 시(詩)를 쓰셨고, 특히 우화(寓話)를 좋아하시어, 이러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유명하여지셨다고 할만큼 훌륭한 "또 한 사람의 박사"라는 소설이 있읍니다. 이것은 예수 크리스트의 탄생을 밀삼아 쓰신 아주 아름다운 우화입니다. 그러고 이 선생님은, 무슨 일이든 하시다가, 또는 길을 걷다가도, 좋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을 때에는, 곧 노오트에다 적어놓고, 저녁밥을 먹을 때 상머리에서 다섯명의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해 들려주었다 합니다. 여기 지금 이야기하려는 "한줌의 흙"도, 또한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의 하나일 것입니다.

어느 시냇가 언덕 위에 한줌의 흙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더럽고 끈적 끈적한 아무 쓸데없는 흙덩이었지요. 그러나 그 흙은,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하고, 얼마 안 있어 자기가 정말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될 때가 오며는, 용감히 나아가 눈부실만큼 크게 활동해야겠다고 굉장한 꿈을 많이 가지고 있었읍니다.

머리 위에는 따뜻한 초여름 햇빛이 쪼이며, 신록이 우거진 나무들은 저마다 기뻐 노래부르고 있읍니다. 아름답게 고은 꽃이 만발하고, 푸른 새 잎들은 춤을 추고, 또 빨간 보석과 파란 보석 가루가 두둥실 구름이 되어 땅에 차있는 것 같은, 밝고 맑은 빛으로 숲속과 온 세상이 빛나는 그러한 시절이 온 까닭입니다. 꽃은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 땅 위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얼굴이 화화 달아, 머리를 다소곳하게 숙이고 옆에 있는 꽃보고 속사겁니다. 그러면 그 옆을 살랑살랑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씨들 덕택으로 천지가 모두 밝고 아름답게 되었읍니다."

시냇물은 새로운 용기를 얻어 힘차게 흐르고, 이쪽저쪽에서 물이 서로 모여드는 것을 기뻐하여 시냇가를 보고 노래불러 줍니다. 얼음의 사슬을 벗어나 눈산에서 도망왔다는 이야기며, 또한 이제부터 빨리 가서 하지 않으면 안될 큰 일거리…물은 많은 공장의 물방아를 돌리고, 바다에 큰 배를 띠우게 될 것 등, 이러한 것을 모두 노래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흙은, 시냇가 언덕 위에 가만히 드러누어, 한눈도 팔지 않고 끈기있게 그 무엇을 마음깊이 기다리며, 자기가 항상 품은 큰 이상(理想)을 혼자서 꿈꾸며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이제 곧 좋은 시기는 올 것이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일생을 마칠 리는 없지. 광영과 미(美)와 명예를, 언제든지 내 한몸에 지닐 수 있을 때가 오고야 말게다."

이렇게 눈이 빠지도록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던 보람이 있어서인지, 기어이 어느날 흙은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곳에서 잡아올려지는 것을 느꼈읍니다. 얇은 철날이 푹 하고 땅으로 들어 간 다음, 그 속에는 한줌 흙이 담아져 나와, 다른 흙들과 함께 구루마에 올려놓여졌읍니다. 그러고 울퉁불퉁하고 자갈이 많이 깔려있는 험한 길을 흔들흔들 흔들리며 구루마는 흙을 싣고 갑니다. 그렇지만 흙은 조금도 무서워하지도 안했고, 괴로워하지도 안했읍니다. 그러고 또 실망도 낙담도 아니했읍니다. 다만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며 고생하고 가는 것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밝고 빛나는 곳을 가려면, 언제든지 이렇게 험한 길을 통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야. 자아! 이젠 나도 얼마 안있어 훌륭한 일거리를 붙잡게 되겠지!"

그러나 이렇게 괴로운 여행도, 그 후에 닥친, 그러고 계속된 곤난과 고통에 비한다면 아무 것도 아니었읍니다. 흙은 나뭇통 속에 집어넣었나 하였더니, 여러 가지 물건과 섞이우고, 다져지고 밟히우고 짓이겨진 것입니다. 이러한 행패는 정말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지요. 그래도 흙은 이를 악물고 참았읍니다. 이렇게 모두들 법석들을 하며 야단들을 하니, 이것은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게다. 아마 아주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일이 생기려나보다. 그러니까 지금만 잘 참는다면, 반드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이렇게 흙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흙은 윤대(輪臺)에 얹히어가지고 한바탕 핑핑 돌리게 되었읍니다.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흙은 자기 몸이 산산이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리지나 않나 하고 눈이 둥그레졌읍니다. 이렇게 한참 돌려지고 있는 동안, 무엇인지 아지못할 힘이 흙을 꽉 눌러 한 모양을 만들었읍니다. 이렇게 한참 아지못할 괴로움에 시달리면서도, 흙은 자기 몸이 변한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러고 누구의 손인지는 모르나 커어다란 손이, 자기를 집어 컴컴한 속에 넣고, 밑에 불을 질렀읍니다. 그 불꽃은 살을 태울고 나갈 듯이 심하여, 흙이 이제것 시냇가 언덕에서 쬐여왔던 햇볕보다도 더 뜨거웠읍니다. 그러나 흙은 참았읍니다. 이렇게 무서운 괴로움도 빛나는 장래를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는 꼭 믿었읍니다. 자기는 훌륭한 장래를 가지리라고.

"나 때문에 모두들 이렇게 애를 쓰고 분주한 것을 보니, 아마 나는 이 세상에선 보기 드문 훌륭한 것이 되나보다. 이 나라에서 제일가는 절의 장식물이나, 그렇지 않다면 임금님 책상 위에 놓는 꽃병이 되리는 것일까?"

이윽고 불길은 그치고 흙은 독 속에서 꺼내어져, 넓은 창공 아래 시원한 곳 널판 위에 놓였읍니다. 이제는 괴로움도 지났읍니다. 앞에는 기쁨과 희망이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는 앞날의 즐거운 꿈을 꾸며, 조용히 널판 위에서 맑은 하늘에 두둥실 뜬 흰 구름만 쳐다보고 있었지요.

흙이 놓여있는 널판 옆에는 그리 크지 않은 연못이 있었읍니다. 깊지도 않고 물도 맑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물결은 잔잔하여 거울 같았고, 그 위를 지나가는 물건은 모두 공평하게, 있는 모양 그대로를 비쳐주고 있었읍니다. 널판에서 행복된 앞날을 꿈꾸고 있던 흙은, 자기가 널판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어질 때 처음으로 물 위에 비친 자기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읍니다. 아아!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그다지도 괴롭고 무서운 고생을 겪고 얻은 것이란, 지금까지 품고 있던 희망의 실현이란……그것은 딱딱하고도 거칠고 또한 붉은 빛의 보기 싫은 하나의 분(화초를 심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흙은 그 때 비로소 깨달았읍니다. 자기의 운명은 임금님이 계신 궁전에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기 몸을 보았을 때, 거기는 빛나는 아름다움도 점잖은 위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흙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즉 자기를 만들어준 주인을 조그만 소리로 원망을 하였읍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기흉하게……"

흙은 불만을 품고 투덜거리며 무거운 마음의 며칠을 보냈읍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 분 속에는 검흙이 채넣어지고, 그 다음에도 다른 무엇이……흙은 뭐가 뭔지 통 몰랐읍니다. 그러나 까칠까칠한 고동색 빛의 축은 것 같은 물건이 검흙 속에 묻히우고, 또다시 그 위에 검흙이 덮이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일에, 흙은 골이 잔뜩 났읍니다.

"먼지와 쓰레기를 처넣다니 참 지독한 놈들이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다지 심하리라곤 생각못했지. 아아! 나는 아마 물건이 되다말았나보다!"

얼마 안있어 분은 운실로 옮겨졌읍니다. 그곳에는 따뜻한 햇볕이 쬐이고, 날마다 분에는 깨끗한 물이 주어졌읍니다. 이와 같이 탐탐하게 여러 날을 거듭하던 중 그 어느날, 한가지 변화가 일어났읍니다. 무엇인지 분 속에서 꼼지락 꼼지락 움직이고 있읍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희망의 싹같습니다. 그렇지만 흙은 아직 그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희망이 무엇인지 모른단말입니다.

어느날 흙은 그곳에서 또다시 이느 큰 고희망으로 옮겨졌읍니다. 정말이지 먼지 생각합니다, 훌륭한 꿈이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이 흙에게는 자기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해야할 훌륭한 일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을에 넘치는 아름다운 음악이 사방에 은은히 흐르고 있읍니다. 그

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사방은 꼭 묻혀있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흙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곧 옆에 있는 자기와 같은 분에게 조그만 소리로 물어 봤읍니다.

"여보세요. 왜 그 사람들은 나를 여기로 데려왔는지? 그러고 왜 저 사람들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지요?"

"아니 아직도 당신은 모르십니까? 당신은 백합꽃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워, 여왕님이라고 불러도 좋을만큼 훌륭한 백합을 가지고 계십니다. 백합꽃잎은 하얗기가 눈보다 더 희고, 술은 순금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백합꽃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까닭입니다. 그 꽃뿌리를 당신은 꼭 안고 있읍니다. 아시겠어요?"

이 말을 듣고 흙은 크게 만족하였읍니다. 그러고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준 주인에게 마음 속으로 깊이 감사했읍니다. 왜 그러냐하면, 비록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분) 일찌라도, 그렇게 귀중한 보물을 자기가 날마다 꼭 안고 지니게 되었으니까요.

—끝—

척척박사

(문) 척척박사. 어려운 문제 하나 받아보십시오. 방안에 불을 켜놓고 소리는 나는데,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서울 종로5가 125의2고 기덕)

(답) 그동안 잘 있었나? 자네들 문제가 너무 쉬워서 내 머리가 자꾸 벳겨지네그려. 그것은 래디오. (척척박사)

(문) 인사도 할줄 모르고 비가 와도 젖지 않고 언제나 따라다니는 것은 무엇? (서울 남산 국민교 4의4 김 병국)

(답) 아마 언젠가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그러나 여보게 조심해 묻게. 비오는 날도 그림자가 있든가? (척척박사)

(문) 척척 할아버지 안녕하신지?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한 후라야 박사학위를 드리겠어요. 하하! 왜 싫으세요? 상을 찡그리시게. 일상 생활에 쓰는 물건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이게웬일인지 쓸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런지? (서울 남산 국민교 4의4 김 세국)

(답) 하하 요즈음 소학생들은 약기만 해서. 그래 내 대답을 잘 할테니 어서 박사학위를 주게. 자네는 아마 그림을 쳐다보고 있는게지. (척척박사)

(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빨간 옷을 입고 종이만 받아먹는 것은 무엇일까? (서울 효제 국민교 3의8 고기풍)

(답) 아직 어린애라 문제도 귀엽군그래. 우체통. (척척박사)

(문)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뵈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것을 물으면 역정 내실까 무서워 쉬운 것을 골랐지요. 그럼 언제나 같이 걸어가는데도 절대로 나란히 맞추어서 걷지 않는 것은? (수원 싱호 국민교 6년 홍 현영)

(답) 제발 역정을 내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보내주게. 대답이 하도 많아서. 걷는 것으로 사람 양쪽 다리고. 기계로 치면 자동차 기차 구루마 앞뒤 바퀴 등이지. (척척박사)

(문) 제가 한 가지 묻지요. 제비가 있는데 땅을 기어만 다니는 제비가 있읍니다. 무엇이겠에요? (서울 방산 국민교 4의1 정 수척)

(답) 하하! 쪽제비란 놈인가? (척척박사)

(문) 척척박사 할아버지 그간 안녕하셨읍니까? 하나 이 세상에 이상한 것이 있읍니다.

앞뒤로 입이 네개가 있는데, 큰놈은 여섯개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괴물이 매일 사람을 가득 삼켰다 토했다 뱉었다 하니 대체 이게 어떤 괴물입니까? 여름도 아닌데 웬 땀을 흘리시나요. (서울 남산 국민교 4의4 정 덕훈)

(답) 아아! 여보게 고만두게. 날마다 타고 다니는 만원전차에 골치도 안아픈가? 에헴! 어떤가. 다음엔 더 어려운 문제를 보내게. (척척박사)

여러가지 새

=뒷 겉장 설명=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새들 가운데는, 이상한 새, 귀여운 새, 무서운 새, 사람의 흉내를 내는 새 등, 참으로 가지 각색의 새가 많이 있읍니다. 우리나라 광릉(光陵=경기도 양주군에 있음) 자연림(自然林)속에서 사는 콜라새라는 것은, 전 세계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이 어느 한 지방이나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새도 있읍니다. 또 꾀꼬리, 뻐꾸기, 굴뚝새, 종달새, 진홍가슴(로빈) 푸른지빠귀, 아메리칸 멧참이 같이 방울소리 모양 맑고도 귀여운 목소리로 유쾌하게 지저귀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새도 있는데, 이들은 대개 조그만 몸둥이와 곱고 화려한 색갈의 털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사람의 흉내를 잘 내는 앵무새, 낮에는 잠자고 밤에 깨어 날아다니는 부엉이, 또는 바다 위만 날아다니는 물새들도 있읍니다. 그런데 이들 새는, 거의 다, 농사나 사람에게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음으로서, 우리들의 과수원이나 정원, 또는 채마밭을 보호해 줍니다. 딱다구리는 나무를 해치는 송충이나 그밖에 벌레를 얻기 위하여, 뾰족한 주둥이로 나무를 찍어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새는 모두 털로 덮이어 있는 동물로, 각기 두 개의 다리와 날개를 가졌으며, 거의 다 날을 수 있는데, 대부분 아주 몸이 가볍고 따뜻한 피를 가졌읍니다. (물고기는 냉혈동물(冷血動物)임) 그리고 이들은 모두 알을 낳아 품어 새끼를 까는 것인데, 대개 봄과 여름에 알을 품으며 새끼들은 가을에 잘 자랍니다.

그리고 새에 따라 지방을 옮겨사는 것이 있읍니다. 즉 제비같이 겨울이 닥쳐오면 따뜻한 강남으로 날아갔다, 또다시 삼사월 봄이 오면 이땅으로 찾아드는 것으로, 보통 이들은 하루에 200마일을 날아야 하며, 때에 따라 겨울을 날 곳까지 날으려면 모두 합하여 5000 마일을 날아야 하는 것도 있다합니다. 어느 새는 저 추운 북미(北美) 아라스카로부터 하와이까지, 수천 마일의 넓은 바다를 날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새는, 봄이 되어 다시 날아올 때엔, 작년에 자기가 있던 그 곳을 다시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들은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노래를 부르는 많은 새들은 7년—15년을 살고, 독수리는 10년—20년을 사는데, 그밖의 몇몇 큰 새는 80년—90년을 사는것도 있다 합니다. 별새 같이 고운 털을 가진 것도, 공작새 같이 아름답고 화려한 털을 가진 것도 있으며, 펭귄 같이 곱슬곱슬하고 긴 털을 가지고 있는것도 있읍니다.

독수리, 매 같이 주둥이가 휘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는 새들은, 새양쥐나 뱀 같은 짐승을 사냥해 먹는데, 그 가운데도 큰 독수리는, 염소나 양의 새끼들을 잡아먹습니다. 남아메리카에 있는 왕독수리는, 죽지의 길이가 8—10피이트나 되는 굉장히 큰 새입니다. 새 중에서 제일 강한 것은 펭귄과 타조로, 펭귄은 남극(南極) 지방에서 살고 있읍니다. 아프리카 타조는 크기가 사람만한 것도 있는데, 이 새는 길고도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으나, 날지를 못하는 관계로, 날개는 퇴화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이 새는 자동차만큼 빠르게 달릴 수 있고, 말만큼 세게 물건을 끌어올 수도 있읍니다. 그리고 알은 굉장히 커서, 무게가 2, 3파운드나 된다고 합니다.

★재 미 있 는★

마법진(魔法陣)이야기

"소학생" 편집부

"소학생" 4월치의 상타기 문제는 이번에 그 대답이 났읍니다마는, 이 문제처럼 바둑판 같은 칸을 치고, 거기에 숫자를 집어넣어 세로가로, 또는 빼두로 덧셈을 해보아서, 모두 합친 수가 같은 것을 마법진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이것을 서양서는 "마지코·스쿠에어"라 부르는데, 이것은 오랜 옛날부터 여러 나라에 알려져 있었는데, 모두들 아주 신비하고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러고 옛날의 점문학자들은, 이 마법진과 유성(遊星)과의 사이에, 무슨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머리를 짜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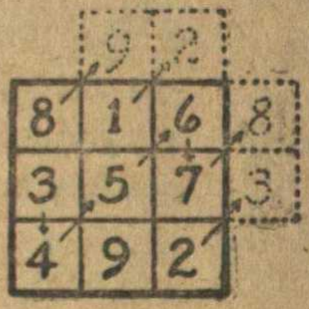
8	1	6
3	5	7
4	9	2

제1도

오늘에 있어서도 인도에서는, 이 마법진을 돌이나 금속에 새기어 몸에 지니고 다닌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차면 병도 안걸리고, 불행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미신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상한 마법진이란 대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푸는 방법은 몇 백가지가 있는지 이루 세일 수 없이 많으나, 여기 제일 간단하고 알기 쉬운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일 간단한 마법진은 제1도 같은 것입니다. 아홉개의 네모골을 가진 정방형(正方形)으로, 그 속에 1부터 9까지의 수가 들어 있읍니다. 그러고 재미있는 것은 어느 줄을 골라 덧셈을 하여도, 빼두로 즉 대각선(對角線)을 덧셈해도 합한 수가 1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법진을 주의하여 잘 들여다 보면, 거기에는 기묘한 그러고도 재미있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그것은 모든 수가 오른쪽 위두른 윗쪽으로 차례차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흥! 무엇이



제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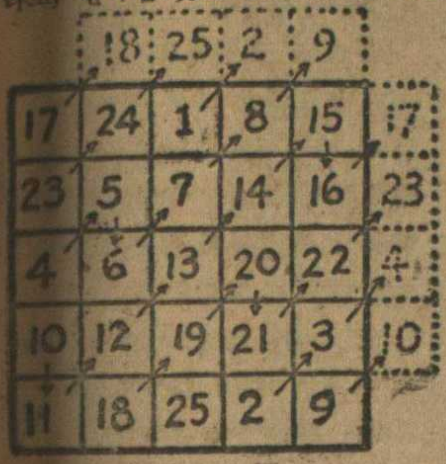
차례차례 됐어?"이렇게 동무들은 말하실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틀림없이 동무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제2도를 보세요.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일 윗줄의 맨 가운데, 1자가 있지않습니까. 여기서 출발하여 화살표 방향으로 나아가면, 다음 숫자 2는 틀바깥으로 나가 버립니다. "아, 이거 큰일났군! 어떻게 처치를 해야지."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 줄의 제일 아래칸 네모골에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다음은 또 화살표 방향으로 2에서 3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틀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숫자도 그 줄 아래칸으로 가져갑니다. 또 다음 것도 먼저의 모양 나아가며 하나, 1자가 가로막혀 나갈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화살이 가리키는 바로 밑칸으로 내려갑니다. 다음은 5, 6, 이렇게 순순히 올라갑니다. 아무 방해도 없이 일직선으로 올라가는데, 또 다시 막혀 7자를 가져갈 데가 없읍니다. 이러한 때는 또다시, 3→4자를 넣을 때 모양과 같이 한 단 내려가 7자를 넣고, 또 먼저와 마찬가지로 8로 나아가고, 9도 역시 그 줄의 밑칸으로 들어놓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각 숫자의 위치가 정해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으나,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자아 동무들! 자기가 생각나는대로 만들어 해보세요. 반드시 1자부터 시작안해도 좋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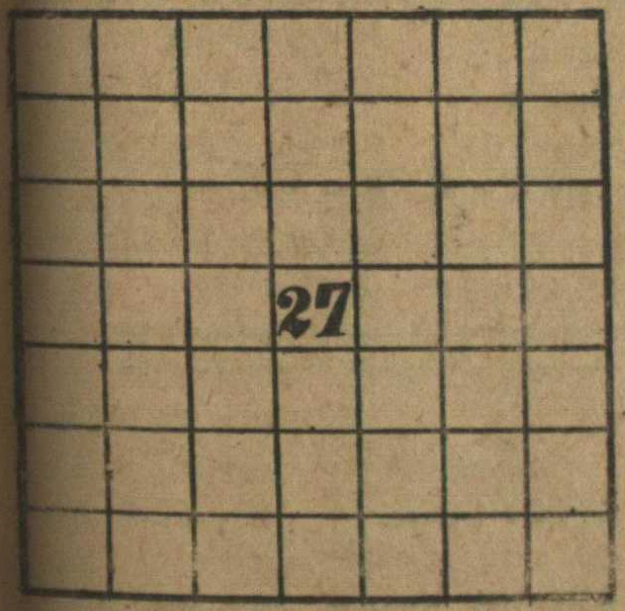
아무 수에서 시작해도 관계 없으니까, 칸을 많이 해서 해보십시오. 다만 어떤 수로 시작하더라도, 맨처음 숫자는 반드시 마법진 맨 윗줄의 한가운데다 넣어야 합니다. 본보기로 제 3 도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된 것이고, 어떤 줄을 덧셈하여도 65가 됩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셈공부가 될 것입니다.



	18	25	2	9	
17	24	1	8	15	17
23	5	7	14	16	23
4	6	13	20	22	4
10	12	19	21	3	10
11	18	25	2	9	

제 3 도

자아 여러분. 이제서야 여러분이 멋모르고 고생하면서 4월치 상타기를 푸신 것이 분하시지요? 그러면 한번 아래와 같은 일곱줄 마법진은 어떻게 숫자를 넣어야 할 것인가 한번 풀어 보십시오. (그리고 49 페이지에 있는 대답과 맞추어 보십시오.)



			27			

꼬 마 상 식

새계 대륙의 면적

이 름	면적(평방Km)	인구(1000명)
아 재 아 주	46,649	1,157,966
아 프 리 카 주	30,403	152,852
북아메리카주	24,614	182,298
남아메리카주	18,218	90,943
구 라 파 주	10,358	539,660
대 양 주	8,558	10,412

★ 4월치 상타기 발표 ★

바른 대답과 뽑힌 분

15	8	13
10	12	14
11	16	9

1등 10명

정 대진 (서울 동대문교 3년)
윤 창영 (서울 종암교 4년)
서 수환 (경기 안양교 3년)
박 찬용 (서울 재동교 6년)
장 기정 (개성 동현교 5년)
안 준희 (경남 정광교 6년)
김 욱영 (서울 덕수교 5년)
이 성숙 (인천 서림교 4년)
장 영부 (서울 방산교 2년)
정 재학 (서울 사범부속교 4년)

2등 40명

유 종화 (서울 효제교 3년)
이 계일 (서울 남정교 4년)
정 대식 (서울 창경교 3년)
구 상랄 (서울 북성교 5년)
이 석순 (서울을지로1가215)
이 경희 (서울 돈암교 4년)
선 홍균 (경기 김포교 4년)
김 경희 (강원 삼락교 6년)
유 호범 (서울 해화교 4년)
이 망자 (서울 청계교 2년)
강 희준 (전북 진서교 5년)
김 련훈 (서울 삼성학원 6년)
김 종달 (서울 삼광교 5년)
김 병용 (전북 무주교 4년)
박 숙희 (서울 효제교 5년)
김 영운 (서울 서대문교 5년)
이 형길 (서울 동명교 5년)
구 창서 (서울 청구교 4년)
이 구래 (수원 과장교 4년)
노 부영 (서울 마포교)
전 신환 (서울 장충교 5년)
박 현규 (서울 광희교 4년)
김 영렬 (서울 방산교 6년)
육 여갑 (부여 남산교 5년)
이 장내 (경기 은평교 5년)
김 재열 (서울 용산교 3년)
최 진 (서울 교동교 5년)
정 영진 (서울 이태원교 4년)
김 종우 (서울 공덕교 4년)
최 재선 (경기 안성교 4년)
현 휘남 (서울 삼청교 4년)
박 태산 (서울 덕수교 5년)
이 우찬 (서울 동대문교 3년)
이 애자 (서울 남산교 6년)
이 복연 (인천 충림동 동회)
성 학진 (강원 산현교 6년)
김 순여 (서울 일신교 6년)
강 희자 (마산 성호교 5년)
박 금순 (경기 안양교 5년)
김 정목 (서울 돈암교 6년)

★바로 맞추신 분이 많아 제비를 뽑아 등수를 결정을 판제로, 맞추신 분도 못뽑히신 분이 많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상타기 문제"는 더딜이 싣는 것이오니 이 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편 집 부)

☆동 화☆

얼굴 검은 여자

유 한 숙

추영이라는 소녀가 어느 고요한 시골에서 살고 있었읍니다. 어느 날 그는, 항상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것, 즉 자기의 얼굴이 보기 추하다는 것을 생각한 나머지, 관음당(觀音堂)을 찾아가 한탄하며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읍니다.

"보살님! 왜 나는 이와 같이 보기 흉한 얼굴을 가지게 되었읍니까? 얼굴은 얽고 흑이 달리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이상한 바람이 휘이 휘이 불며 어디선지 얼굴이 검은 한 여자가 나타났읍니다. 그 여자는 약간 웃음을 띠우며,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싸느란 말로,

"너는 얼굴이 못난게 그렇게도 싫으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 세 방울을 주겠다. 이 물은 반드시 너를 아름답게 하여 줄 것이다."

추영이는 갑자기 이 얼굴 검은 여자가 나타났음으로, 깜짝 놀라 몸을 덜덜 떨고 있었읍니다. 그

러나 얼마 후 다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당신은 정말 그러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세 방울의 물을 날 주세요. 빨리요 네 어서……"

추영이는 얼굴이 아름답게 된다는 바람에, 어떻게 목마르게 재촉하였읍니다.

"잠간만 기다려라! 또 할 말이 있다. 이 세 방울의 물은, 한 방울은 얼굴을 씻고, 한 방울은 혹을 문지르고, 한 방울은 마셔라!"

하고, 추영에게 물을 세 방울 주었읍니다. 기쁨에 넘쳐 받은 그것을 받고 추영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얼굴을 들고 보니, 아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 그 여자는 언제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선녀를 보내신 모양인가보다. 그러나 얼굴이 검은 선녀도 있나?" 추영은 잠시 의아스럽게 생각했으나, 금세 세 방울의 물생각이 머리에 떠올라, 아까 그 얼굴 검은 여자의 말대로 차례 차례 하였읍니다. 추영이는 곧 아름다워졌고, 이 세상에선 둘도 없는 예쁜 소녀가 되었읍니다. 이 소문이 세상에 떠돌아, 미인 추영의 이름은 온나라에 퍼지고, 모든

★요술 장난★

오래기 빼내기

요술하는 동무는 손수건과 긴 오래기를 들고 여러 동무 앞에 나가 섭니다.

"자, 동무들 보십시오! 이제부터 매우 재미있는 오래기 빼내는 요술을 보여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여러 동무들 중에 아무나 상관없으니, 나의 두 손을 수건으로 단단히 매어 주십시오. 그러면 유동무에게 부탁합니다."

여기서 유동무는 동무의 두 손을 수건으로 단단히 매었읍니다. (그림 1)

"야아, 이건 정말 단단히 매었읍니다그려. 두 손을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다음에 김동무가 수건으로 이처럼 단단히 동여맨 이 두 손 사이에 오래기를 끼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래기의 양쪽 끝을 놓지지 말고 잘 붙잡고 계십시오. 그리고 나의 두 손 사이로 오래기의 중간을 끼어서 이것을 오른손 (그림 2—물론 그림에는 위에 있는 손) 의 가운데 손가락에 걸어주세요…매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동무들 보시는바와 같이, 두 손을 단단히 수건으로 매었고, 이 사이로 오래기를 끼었고, 더우기 오래기의 양 끝을 김동무가 쥐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오래기는 수건을 벗기나 오래기가 끊어지기 전에

사람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읍니다.

그 때 마침 이 나라 임금님이 병이 나서서, 날마다 의사가 와서 약을 쓰고 또 앞날을 의논하고 있었읍니다.

"임금님 병환은 의술로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다만 한가지 미인의 간을 삶아서 그 물을 마시면 병환이 날 것입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렇지만 차마 그러한 것은 못한다는 듯이…….

이 말을 듣고 임금님은 곧 신하를 불러 명령하되,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인을 찾으라 했읍니다. 신하는 곧 누구에게 묻지도 않고 미인 추영의 집을 찾아갔읍니다. 궁중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또한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추영의 행복한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읍니다. 추영이는 얼마나 놀랐겠읍니까? 추영은 잠시 어찌할바를 몰랐으나, 곧 그는 예전 자기를 아름답게 해준 관음당 생각이 불현듯 머리에 따올라, 추영은 그 길로 달려갔읍니다. 고요히 무릎을 꿇고 추영은 정성스럽게 빌고 있읍니다.

"살려주십시오! 내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내 얼굴을 예전

얼굴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인제 죽고 맙니다. 아아! 보살님 어찌해야 좋습니까?"

"얘 추영아."

어디서 어느새 나타났는지, 얼굴 검은 여자가 조용히 추영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있지 않습니까!

"아아! 여보세요. 어쩌면 좋아요?"

추영은 그 여자의 손을 붙들고 울기 시작했읍니다. 얼굴 검은 여자는 슬퍼하는 추영을 대단히 불쌍히 여기고, 그러나 점잖은 말로,

"너는 요전에 못난 얼굴을 싫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은 어여쁜 얼굴이 싫으냐?"

그 때에 추영은 더욱 훅훅 느껴 울뿐 아무 말이 없읍니다. 한참 이것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던 얼굴 검은 여자는, 잠자코 또 다시 세 방울의 물을 주었읍니다. 추영이는 전과 같은 보기 흉한 얼굴로 다시 변하였읍니다. 얼굴 검은 여자는 또 어디론지 사라지고……

추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혼자 중얼거렸읍니다.

"아아! 인제는 아무 것도 싫다. 나 생길대로, 타고난대로 내가 할일을 열심으로 하자. 흉하건 더럽건 씩씩하게 올바르게 살자."

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나 될 수 없는 것을 나는 기술로서 오래기를 빼내어 보겠읍니다. 그러면 수건으로 내 손이 보이지 않게 덮어 가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이 기술을 부리는 동무는, 무어라고 입속말로 중얼중얼 하면서 조금 있다가,

"자 좋습니다. 김동무 조금도 염려마시고 오래기를 힘것 잡아다려 보십시오."

야! 이상도하다! 정말 이상하게 오래기는 끊어지지 않고 빠져 나왔읍니다.

그래서 수건을 베껴보았으나, 두 손은 수건에 처음부터 묶여있는대로 그대로 있읍니다.

【요술방법】

수건을 손에다 덮고 수건 속에서 잠간 손을 놀리면 됩니다. 즉 오른손의 가운데 손가락에 걸은 오래기를 조금씩 빼내서, 오른손 손등으로 넘겨 놓으면 됩니다. 이리하여 오래기는 그림 (2)의 점찍은 줄과 같이 손목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 문제없이 오래기는 잡아당기는 쪽으로 쑥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절대로 풀을 필요가 없읍니다. 더욱 이 요술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할 때까지는, 구경하는 동무들에게 보이고, 나중에 가

운데 손가락을 오래기 사이에 깔짝엔 수건으로 덮어가린 후에 하여야 감쪽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란히 빛나며 해돋는 동산 밑 탄탄한 뜻에 자리잡고, 아니라 어린이들을 바르고 힘차게 키우고 있는 이 학교는, 단기 4272년 4월 10일 인천 제2송림 심상소학교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는데, 그 해엔 인천 송현학교 교사 일부를 사용하여, 남자136명, 여자 51명을 뽑아 3학급을 만들어 공부를 시작했읍니다. 그 후 4276년 지금과 같은 훌륭한 교사도 새로 짓고, 4279년 3월에 서림학교라 이름까지 고친 다음, 그야말로 새로운 출발과 함께 오늘날까지 눈부실만큼 발전해 온 것입니다. 현재 2200명 어린이들이, 33명의 선생님들과, 교육을 위하여 한결 같이 심혈을 기우리시는 김 신삼 교장선생님 밑에서, 날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힘것 공부하고 있읍니다.

(기자)

제11회 인천 서림 학교치

김 신삼 교장 선생

동요 밤에 걷는길

6와2 이 하용

달도없는 캄캄하고 고요한 밤에
나와 동생 둘이서 손을 맞잡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 옵니다.

밤에 걷는 걸음은 왜그리 빠른가요
뒤에서나 앞에서나 소리가 나면
웬일인지 걸음은 더 빨라져요.

밤에 가는 골목은 왜그리 무서운지
무슨소리 나며는 더 무섭지요
뒤에서 누구인지 오는 것 같애.

동요 귀뚜라미

4년 최 송자

귀뚜라미 귀뜰귀뜰 어디서 우나?
둥근달님 커단눈에 들칠까 보아,
귀뚜라미 귀뜰귀뜰 숨어서 울지.

귀뚜라미 귀뜰귀뜰 어째서 우나?
바람불고 단풍드는 가을왔다고,
걱정스리 귀뜰귀뜰 울고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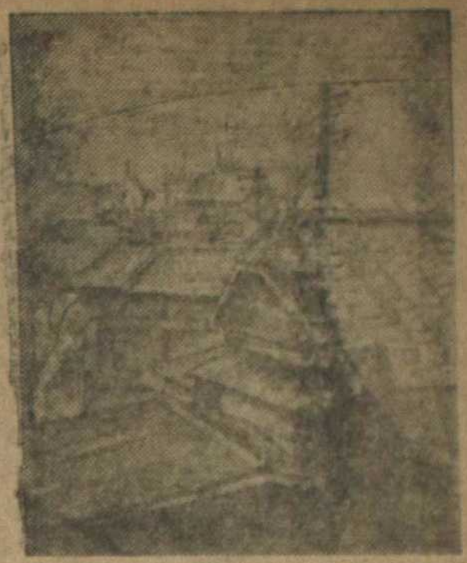
★작문★

라 켓 트

6의2 이 하 용

어떤날 일요일이었다. 점주가 어떻게도 하고싶은지, 공부가 끝나자 얼른 집앞에 보이는 학교운동장으로 갔다. 와보니 벌써 동무들은 재미있게 공을 치며 놀고 있었다. 나는 요새 들어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매우 공을 치고 싶었다. 그래서 한동무가 치고있는 곳으로 가서, "얘 한번 쳐보자." 하니 "나도 인제 왔어"하며 여전히 딴동무와 치고있었다. 원히 아침에 온 것을 다 아는데도, 핑계로 그렇게 말한다. 나는 그 말을 들으니 매우 기분이 나쁘다. 그러나 너무도 치고 싶어 여러번 졸랐으나, 조를 때마다 슬금슬금 피한면서, 라켓으로 뒤로 감추고 없다고만 한다. 나는 너무도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지, 돌아가서 한대 갈기고는 싶지만, 차마 그럴 수도 없다. 그래 나는 참는수 없이 다른동무에게로 가서 같이 놀았다. 한참 재미있게 노는데, 어디서인지 우는 소리가 난다. 누가 우나 하고 살펴보니 아까 라켓트를 갖고 가던 동무였다. 나는 어떻게 좋은지 "아이 고메 싸다" 하는 소리가 입 밖에까지 나왔다. 아마 공을 차다가 헛쳐서 라켓트로 맞은모양이다. 무릎에서는 시뻘건 피가 줄줄 흐른다. 나는 라켓트를 안빌려준 생각을 하니 가보기도 싫지만, 그러나 같은 동네서 자는 동무요, 한학교에 다니는 동무라 차마 그냥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달려가 종이로 무릎을 씻어주고 손수건으로 쳐매 주었다. 그 때서야 조금 괜찮은지 울음을 그치고 땅에 "털퍼덕" 하고 앉더니, 나를 치어다보며, "내가 라켓트도 안빌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고맙게 해 주니" 하며 훅훅 느껴운다. 나는 "괜찮을 때도 있지" 하며 그를 위로해 주었다. 해는 벌써 서산으로 지고,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무럭무럭 난다. 나는 그 동무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 그 다음부터는 그 동무와 나와 친절히 지내고, 또 그전 그마음은 싹 없어지고 좋은 동무가 되었다.



도 화 6의4 황 영 히

아름다운 화려강산

습 자 5의5 정 배

★ 39페이지 마법진 대답 ★

32	41	50	3	12	21	30
40	49	9	11	20	29	31
48	8	10	19	28	37	39
7	16	18	27	36	38	47
15	17	26	35	44	46	6
23	25	34	43	45	5	14
24	33	42	51	4	13	22

수 3에서 시작하여 51에서 끝난 189의 마법진입니다.

씨동이

★[illegible] 우편요금이 오른 것을 아십니까? 우표는 15원이고 엽서는 10원으로 5월 1일부터 변경되었읍니다. 간혹 동무들 가운데는, 그 전대로 4원짜리 우표를 붙여 작품이나 소식들을 편집부로 보내시는데, 이렇게 되면 사무상 많은 지장이 있을 뿐더러, 모자라는 요금을 배트 하여 물게됩니다. 물론 이런 것이 한둘이라면 관계없으나, 오는 편지마다 이렇게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동무들은 이러한 것을 널리 양해해주시어, 이후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으시도록 바랍니다.

★또하나 서울 계신 동무들에게 부탁이 있읍니다. "애독자 아협 상타기"해답을 편지로 부치시는 분은 관계없으나, 직접"소학생 편집부"로 가져오시는 분은, 이 다음부터는 문장각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종로2가에 있는 문장각으로 가져가시면, 그곳에 큰 통이 준비되어 있을테니, 그속에 넣고 가시면 됩니다. 영보빌딩 3층에 있는 편집부까지 올라오시지 마시고, 6월치부터는 반드시 문장각으로 갖다 내십시오. 동무들! 꼭 부탁합니다.

(씨 동 이)

소학생 구락부

▲ 봄도 깊어 녹음이 짙어가는 여름이 오려는 이 때, 편집부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날마다 우리 어린이들의 훌륭한 잡지"소학생"을 내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우리 5학년에서는 4월치부터 애독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상타기 문제"를 여러 동무들과 20분 동안에 풀어내기 경쟁을 했읍니다. 여기 20분 동안에 푼 사람 (41명) 해답을 같이 넣어서 보내오니, 잘 보아 주십시오. 그러고 동요 6편도 보내드립니다. 지금은"소학생" 나오기를 한 재미와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제부터 작품도 많이 보내어 지도를 바라겠읍니다. 그럼 또 뵈올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전북 부안 전서 국민교 5년 권 영호)

▲ 처음으로 뵙게되는 "소학생"편집부 기자선생님들 얼마나 분주하십니까? 저는 학교 선생님한테 "소학생"소식을 듣고, 4월부터 열심으로 애독하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기자 선생님 앞으로 많이 좋은"소학생"을 만들어 주시어, 저희들을 가르치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은 동요 11편을 보내오니, 잘 지도하여 주시옵기를. 그러면 기자 선생님 몸조심 하세요. (전북 부안 전서 국민교 6년 이 신애)

▲ 편집부 선생님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책을 읽었읍니다. 그 중에서"소학생"잡지책이 내 마음에 제일 좋습니다. 형님이 읽어보시고 잘 되었다고 칭찬하시더군요. 끝끝내 볼 생각입니다. 지금 "36의 수수께끼"를 맞추어 보냅니다. 우리 동무에게도 보여 주어, 많이 읽도록 하겠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경남 통영 구조라 국민교 3년 허 재춘)

▲ "소학생"은 다른 책보다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할 것이 있는데 들어 주실는지? 과학에 대한 것이 적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과학에 대하여 많이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선생님들 안녕히…… (서울 서대문 국민교 4의 3 박 문규)

△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되도록 힘쓰겠읍니다. (기자)

만들고 나서

사람의 몸이 튼튼 하려면 반드시 충분한 영양 (營養)이 필요하듯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건강 이외에 정신적 (精神的) 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보고 배우고 듣고 [illegible] 하는 그것이, 즉 여러 동무들이 밥을 먹고 몸의 영양을 도웁는 것 같이, 동무들의 마음과 머리를 풍부하고 무게있게 하는 것이지요. 무슨 일에든 있는 힘을 다 하여 성실하게 살아 갈 것입니다. 서양의 어느 유명한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남에게 용서를 바란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도 부끄러워 하거나 주저할 일이 아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은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현명해지고 인격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려우는 까닭이다." 라고 말했다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정의 (正義)를 위해선 자기의 몸을 희생 하고라도 싸워 나아갈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한가지 섭섭한 일은, 작년 9월치부터 동무들을 위하여, 재밌고도 깊이있는 글을 써 주신, 박 영종 선생님의"동요맛보기"가 이 달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배우고 느끼신 것을 잊지마시고, 잘 실지에 응용하여, 바쁘신 가운데 써주신 선생님의 호의 (好意)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며, 다음 기회에 또 써주시기를 바라고 기자와 함께 동무들은 다같이 선생님의 건강을 빌기로 합시다. (박)

4282年 6月 1日發行
소 학 생 · 값 100 원
6월치 ★ 제 68호
編輯兼發行人 印刷人 · 主幹 尹 石 重
發行所 兒 協
4280年 9月 30日 [illegible]
서울 鍾路 2街 82 [illegible]
總販賣 乙酉文化社
서울 鍾路 2街 [illegible]
振替 서울 [illegible]
[illegible] 3970 / 0187 / 3492 / 0328
서울신문社 · 印刷局
4280年 9月 31日 [illegible]

★ [illegible] 日字 4279年 7月 5日 ★ 第3種 郵便物 [illegible] 日字 4279年 4月 22日 ★

寄雜 No. 00560

옹걸이와 쥐
이영춘
1
앗 이게 웬 일 이야?
2
저 저도둑 놈이 먹었구나
3
흥 괘씸한 놈 당장에 잡아 죽이자
4
어디 보자 어 흠!
5
옹 내게 이 책갈이 넘어 갈걸
6
옳지 잡았다
덜컹!
7
앗 어떻게 된일이야
낑 낑
8
저 저놈 때려 죽여야
끽-끽 타려나차
9
가만 있어 어디로 도망을 쳤어?
10
오라 이런데 숨어 있고나
11
앗!
끽 끽

그림백과 사진 ⑪

여러나라 새 설명(43페이지에)